

# 초기 한국민주당 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동향과 진보적 사회경제정책의 배경

윤덕영\*

## 〈차 례〉

1. 머리말
2. 한국민주당의 결성과정과 우파 사회주의 세력들의 참여
3. 한국민주당의 초기 활동과 진보적 사회경제정책의 배경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초기 한민당에 참여한 우파 사회주의세력, 즉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의 인물들의 동향을 한민당의 결성에 이르는 과정과 초기 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또한 초기 한민당에서 제기된 진보적 사회경제정책의 내용과 함께 그러한 정책이 제기된 배경을 이들의 동향과 관련하여 해명하려는 것이다.

초기 한민당에는 원세훈, 김약수, 유진희, 정노식 등 일제하 사회주의운동 출신 인물들이 간부로 참여하였다. 193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이들의 이념과 활동은 차이가 컸다. 그렇지만 해방 후에는 거의 모두 현재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는 계급투쟁보다도 민족적 총단결로, 그리고 의회중심주의 정치질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초기 한민당은 당시 좌익이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원칙', 즉 사회주의적 경제 원리를 상당히 수용한 사회경제정책을 주장했다. 한민당 핵심인 송진우는 당면의 혁명을 민족주의 이념 하에 수행되는 사회민주주의혁명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당내 사회민주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를 당 밖의 우파 사회주의에게 보내는 입장 표명이었다. 1945년 시기 원세훈은 중요한 정치적 회합이나 모임에 항상 한민당의 대표로서 송진우와 함께 했다. 한민당 주도세력은 공산주의세력과의 협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지지론의 전제하에서 협력을 추진하였고, 의회민주주의의 질서의 정치체제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한민당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전제에 동의하여 활동하였다. 1946년 초까지는 정노식의 탈당 외에 한민당내 사회민주주의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자를 포함한 진보그룹 대다수는 한민당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주제어] 한국민주당, 사회민주주의, 우파 사회주의, 원세훈, 김약수, 유진희, 정노식, 서정희, 송진우

## 1. 머리말

해방직후인 1945년 9월, 광범한 우익세력들을 망라하여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이 결성되었다. 한민당에 대해서는 지주·자본가 정당, 민족운동의 역사성이 없는 친일세력의 정당, 미군정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동적 정당, 이승만을 지지하다가 버림받은 정치세력 등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런 인식은 한민당에 대한 연구가 그 전사를 이루는 일제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연구에 비해 빈약하기 때문이었다. 한민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오래전 심지연의 연구<sup>1)</sup> 이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주 적은 편이고, 그 역시도 일제하의 민족운동 조망 속에서 해방 후를 연결시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sup>2)</sup>

2010년대 들어 윤덕영은 일제하 동아일보계열을 비롯한 민족주의세력의 운동과 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민당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기존과 다른 해명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창당 초기 한민당은 일제하 주요 민족운동 세력 중 동아일보 계열과 호남지역 정치세력이 주도하고, 기독교계열 양대 세력 중 하나인 흥사단·수양동우회 계열 및 서북지역 정치세력이 다음으로 참가했으며, 또 다른 세력이었던 동지회·홍업구락부 계열 및 기호지역 정치세력의 일부도 가담하여 결성되었다. 그밖에 경상도를 비롯한 각 지역의 민족주의 세력도 참여하였다. 결성당시 한민당(발기회 포함)과 자매단체인 국민대회준비회 부장급 이상 간부 36명중 약 90% 이상이 민족운동 관

1) 심지연, 『한국민주당연구』 I, 풀빛, 1982; 『한국현대정당론-한국민주당연구』 II, 창작과비평사, 1984.

2) 한민당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다음 참조. 윤덕영, 「1946년 전반기 한국민주당의 체편과 우익정당 통합운동」, 『사학연구』 121, 2016, 316~320쪽.

련자들이었다.<sup>3)</sup>

그런데 초기 한민당에는 원세훈(元世勳), 김약수(金若水), 유진희(兪鎭熙), 정노식(鄭魯湜), 서정희(徐廷禧) 등 일제하에서 사회주의운동을 했던 인물들도 적잖이 가담하였다. 물론 한민당에는 김준연과 장덕수와 같이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의 지도적 인물이었다가, 명백히 우익으로 전향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우익과 입장을 같이하며, 전향의 경계선에 있었다. 또한 해방정국에서 좌우 대립 구도가 극명해지면서는 대부분 우익 영역에서 활동하고, 남한 단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해방 후 우익세력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 사회주의운동 출신자들의 상당수는 일반적 우익세력들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1946년 하반기 좌우합작운동을 둘러싸고 한민당이 보수화되자 한민당을 탈당하거나, 민중동맹 결성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간과 조직에서 활동을 하였다. 이념적으로도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을 보이고 있었다. 때문에 해방직후의 정치와 사상 지형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이들의 엄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기 한민당에 참여한 우파 사회주의세력,<sup>4)</sup> 즉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의 인물들의 동향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3) 윤덕영, 「1945년 한국민주당 초기 조직의 성격과 주한미군정 활용」, 『역사와 현실』 80, 2011, 252~269쪽.

4)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여 다기한 이념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 전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동아시아의 경우 19세기 초반 다양한 사회주의 이념이 한꺼번에 전래되었고,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아나키즘 등 여러 경향이 혼재되어 사회주의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러시아혁명이후 소련이 코민테른을 통해 동아시아 변혁운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공산주의운동의 이념하에 다양한 사회주의 이념이 포괄되어 운동이 전개되었다. 1920년대 초반 조선의 고려공산당(상해파), 일본 최초 공산당, 중국 최초 공산당에는 공산주의 외에도 다양한 경향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런 경향이 정리되고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이념과 운동의 분화가 구체화된 것은 1920년대 중반이다. 일본의 경우 무산정당운동이 전개되면서 그 분화가 가시화되었다. 일본에서 최초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기독교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다. 그리고 1924년 4월에는 일본 페이비언 협회가 발족하였다. 사회주의의 다양한 조류들이 합류하여 1926년 3월 합법적 무산정당인 노동농민당이 결성되었다. 그렇지만 내부 대립이 심화되면서 1926년 12월에는 우파와 중간파가 이탈하여 각기 사회민주당과 일본노동당을 결성하였다. 여기에 우파의 일본농민당을 다하여 전국적 규모의 일본 무산정당은 크게 4개로 정립되었고, 이를 전후하여 사회주의 좌파(좌익)와 우파(우익), 중간파란 구별이 언론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파(우익) 사회주의세력은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920년대 일본 무산정당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윤덕영, 『조선중앙사회단체협의회 논쟁과 합법운동론』, 『역사와 현실』 118, 2020, 255~259, 268~273쪽.

한민당과 해방이후 이들의 행적과 활동에 대해서는 몇몇 개별 인물 연구를 제외하고는 역시 연구가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다.<sup>5)</sup> 이들 중 대표적 위치에 있던 원세훈에 대해서 해방정국에서 같이 활동하였던 송남현이 그 일대기를 서술하면서 설명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의 해방3년사 연구와 증폭되어 원세훈의 활동 자체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sup>6)</sup> 그의 김재명, 조규태, 전성호 등에 의해 일제하와 해방 후의 행적에 대한 연구가 각기 진행되었다.<sup>7)</sup> 또 다른 대표적 인물인 김약수에 대해서는 박철하와 전명혁에 의해 일제하 북풍파그룹의 활동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행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8)</sup> 또한 박종린은 대중시보사그룹을 해명하는 가운데 김약수의 행적을 일부 분석했고,<sup>9)</sup> 김진웅은 1920년대 초 제일 조선인 유학생의 사회주의활동을 분석하면서 김약수를 일부 다루었다.<sup>10)</sup> 조형열은 1930년대 전반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과 잡지 『비판』을 다루면서 역시 그의 행적을 일부 해명하였다.<sup>11)</sup> 그렇지만 1930년대 행적과 해방직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김하나는 김약수의 해방 후 정치노선과 민족공화당 결성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시기상으로 1948년과 1949년에 한정되어 있고, 일제하 이래의 사회주의운동과 민족운동과 해방 후의 정치구조에 대한 이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sup>12)</sup> 박상회도 제헌국회기 성인회 활동

5) 박태균은 한민당의 성격변화를 추적하면서 한민당이 김성수 계열 및 기독교 계열의 주류와 원세훈, 김약수, 김병로의 비주류로 구분된 정당이었고, 1946년 좌우합작 7원칙을 계기로 비주류가 한민당을 이탈함으로써 한민당의 성격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박태균, 『해방직후 한국민주당 구성원의 성격과 조직개편』, 『국사관논총』 58집, 1994.

6) 송남현, 『시베리아의 투사 원세훈』, 천산산맥, 1990.

7) 김재명, 『한국현대사의 비극 : 중간과의 이상과 좌절』, 선인, 2003; 조규태, 『1920년대 중반 재북경 창조파의 민족유일당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 2003; 조규태, 『원세훈의 임시정부 수립·변혁 활동과 민족유일당 운동』, 『승실사학』 29, 2012; 전성호, 『해방 이후 원세훈의 좌우합작 운동과 정치활동』,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8) 박철하, 『북풍파 공산주의 그룹의 형성』, 『역사와 현실』 28, 1998; 박철하, 『김약수, 반일 민족해방 운동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운동까지』, 『내일을 여는 역사』 28, 2007; 전명혁, 『1920년대 전반기까 엔당과 북풍파의 성립과 활동』, 『사람』 12·13, 1997.

9) 박종린, 『1920년대 초 반자본주의사상과 대중시보사 그룹』, 『한국사상사학』 47, 2014.

10) 김진웅, 『1920년대 초 제일본 조선인 유학생의 사회주의 활동과 코스모구락부(コスモ俱樂部)』, 『한일민족문제연구』 37, 2019.

11) 조형열, 『1930년대 전반기 잡지 『비판』의 주도층과 편집방침』, 『역사연구』 34, 2018.

12) 김하나, 『김약수의 진보적 정치노선과 민족공화당 결성 운동 1948~1949』,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을 분석하면서 김약수를 일부 다루었다.<sup>13)</sup>

한민당에 참여한 우파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크게 보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단 일제하 운동 계파 출신별로 분류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김약수와 김종범(金鍾範) 등 과거 북풍파 출신의 인물들이다. 둘째, 과거 상해파 출신의 인물들이다. 여기에는 나경석(羅景錫), 정노식 등의 국내 상해파 주류출신 뿐만 아니라, 유진희 등 국내 상해파 비주류인 신생활사 출신자들, 재일본 상해파 출신의 변희용(卞熙鎔) 등이 있다. 셋째, 1930년 신간회 김병로집행부 당시의 간부 출신과 해소반대파 및 합법운동파 출신자들로 서정희, 박문희(朴文熹), 이시완(李時玩) 등이다. 넷째, 공공연히 사회민주주의 경향을 보였던 인물들이다. 여기에는 8·15가 되자마자 고려민주당을 결성하였던 원세훈과 박명환(朴明煥),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사회민주주의 경향을 보인 이순탁(李順鐸), 서상일(徐相日) 등이다. 다섯째, 기타계열의 인물들이다. 서울파 출신의 신일용(辛日鎔), 김창수(金昌洙), 조정서(曹景紘), 이우즈크파 고려공산당 출신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하여 한민당에 가담한 고창일(高昌一) 등이 있다. 이들 중 1930년대 전반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을 전개하던<sup>14)</sup> 소위 ‘잡지사회주의자’들은 김약수, 유진희, 조정서 등이다. 1946년 하반기 한민당의 내분사태에서 한민당을 탈당하거나 민중동맹에 참여한 사람들은 김약수, 원세훈, 이순탁, 박문희, 김창수, 조정서, 고창일 등이다. 한편 정노식은 초기 한민당에는 가담했으나 이후 좌익으로 다시 돌아가 활동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들 중 일부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 보려고 한다.

한편 1945년 창당 직후의 한민당은 지주·자본가정당이라는 비판이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진보적 사회경제 정책을 표명하였다. 초기 한민당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심지연의 연구 이래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석사학위논문, 2003.

13) 박상희, 「제헌국회기 성민회의 결성과 활동」, 『석당논총』 72, 2018.

14)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조형열, 「1930년대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의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과 ‘실천적 조선연구론」, 『한국사연구』 177, 2017.

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정책의 내용과 함께 그러한 정책이 제기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를 한민당에 참여한 우파 사회주의 인물들의 동향과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해방직후 초기 국면에 대한 이해를 보다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 2. 한국민주당의 결성과정과 우파 사회주의 세력들의 참여

### 1)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둘러싼 좌·우의 대립과 원세훈의 행적

8·15 해방 직후 여운형은 조선총독부와 치안유지 및 행정권 이양을 협의하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결성한다. 8월 16일 부위원장 안재홍의 건준 설립에 대한 방송이 있는 후, 8월 17일 최초의 중앙건준 조직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위원장 여운형과 부위원장이 안재홍 외 조직부장에 정백, 총무부장에 최근우, 재정부장 이규갑, 선전부장 조동호, 경무부장 권태석 5개 부서장만 발표되었다. 건준 1차 중앙조직은 건준을 밀받침하고 있는 정치세력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건준을 밀받침해야 할 여운형이 일제말기 결성한 조선건국동맹(이하 건국동맹)은 소위 초건 간부와 재건 간부의 논란에서 드러나듯이 자체의 조직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었다.<sup>15)</sup> 이에 따라 1차 중앙조직은 일제하 이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세력 중 극히 일부만으로 조직되었다.

건준 수립에 대한 민족주의세력의 반발 속에 8월 17일, 여운형이 송진우를 찾아가 단독회담이 열렸지만 결렬되었다. 18일에는 건준의 여운형과 안재홍, 민족주의세력의 대표로 김병로·백관수·이인이 회동하였다. 그리고 19일 전국유지자대회를 소집하고 건준을 확대시켜 새로운 중앙기관을 설립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당일 밤 여운형은 테러를 당해 한동안 건준

15) 건국동맹 초기 간부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이만규, 『여운형투쟁사』, 민주문화사, 1946, 200~202쪽; 여운홍, 『몽양 여운형』, 1967, 청하각, 148~149쪽.

에 나오지 못하고 양평에서 요양을 하게 된다.<sup>16)</sup> 당시 해방된 재건된 조선공산당(이하 조공)세력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재건파 조공세력과 장안파 조공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재건파 조공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과정이었다. 8월 22일, 1국 12부와 33명의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된 건준 2차 중앙조직이 발표되었다.<sup>17)</sup> 건국동맹·여운형계가 7명, 재건파 조공계가 7명, 장안파 조공계가 5명, 기타 사회주의 우파계열이 3명, 안재홍 계열이 5명, (한민당으로 합류하는)민족주의 계열이 3명, 기타 민족주의 계열이 2명, 미상 1명 등이다.<sup>18)</sup> 사회주의계열이 다수를 점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조공계열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후 8월 23일과 25일에 선전부장 권태석을 실무자로 하여 건준 중앙집행위원 확대를 위한 민족주의세력과의 2차 협상이 진행된다. 권태석이 어떠한 맥락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교섭을 진행시켰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안재홍의 지시를 받았다는 연구도 있지만,<sup>19)</sup>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의 서울상해파 출신의 권태석이 안재홍만 믿고, 건준의 성격을 바꿀 이런 협상을 시도하였을지는 의문이 든다.<sup>20)</sup> 권태석은 김병로·백관수 등과 함께 모여 건준위원을 확대하는 구체적 명단을 합의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다시 무산되고 만다. 건준 측 다른 간부들이 이 합의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사회주의 인사를 대거 추가한 명단을 작성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게 된다.<sup>21)</sup> 송남현은 이렇게 건준 측이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은 우익을 배제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작용 때문이었다고 한다.<sup>22)</sup> 조공계열

16) 제1차 협상과 그를 둘러싼 의문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윤덕영, 『8·15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좌·우 분립의 배경』, 『사학연구』 100, 2010, 845~848쪽.

17) 자세한 중앙간부 명단은 다음을 참조. 민주주의민족전선편, 『조선해방연보』, 82쪽; 송남현, 『해방 30년사』, 성문각, 1976, 71쪽. 양자의 명단은 동일하지만 『조선해방연보』에는 치안대에 이병학이 더 들어가 있다. 본고에서는 1946년 간행된 『조선해방연보』를 기준으로 한다.

18) 윤덕영, 앞의 논문, 2010, 840~841쪽.

19) 김인식, 『민족주의세력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개조 움직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2018, 253~254쪽.

20) 권태석의 이력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윤덕영, 앞의 논문, 2010, 836~837쪽, 각주 23)

21) 제2차 협상의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윤덕영, 앞의 논문, 2010, 848~850쪽.

22) 송남현, 앞의 책, 1976, 74쪽.

은 민족주의세력의 2차 협상과 합의를 저지시키면서 9월 1일 135인 확대 중앙집행위원 명단을 발표하였고, 9월 4일 건준 확대위원회에서는 여운형과 안재홍에 대한 정·부 위원장 건준 사임건을 통과시키기 직전까지 갔다.<sup>23)</sup> 조공계열은 건준의 주도권, 헤게모니 전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며, 무리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준의 주도권은 8월 말경이면 재건파 조공으로 넘어갔다. 이를 토대로 조공은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하 인공) 수립을 선포한다.<sup>24)</sup>

건준과의 협상이 좌절되자 민족주의세력들도 독자적 정당 결성에 즉각 착수한다. 후에 한민당으로 합류하는 우파 사회주의자들 중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원세훈이었다. 호가 ‘춘곡(春谷)’으로, 1887년 함남 정평출신인 원세훈은 1920년대 전반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정)의 개조를 위한 국민대표대회에서 창조파로 활동하였다. 그는 1926년 7월 중국 국민정부의 북벌을 계기로 중국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될 때 안창호와 함께 가장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였다. 1926년 10월 대독립당북경축성회를 발족하여 선언서를 발표했고, 각지에 축성회를 결성한 후 이를 토대로 민족유일당으로 대독립당을 결성하려 하였다.<sup>25)</sup> 1928년 3월 장쭤린(張作霖) 군벌 관현에게 체포되어 북경 일본영사관에 인도되었고, 6월 신의주로 압송되었다.<sup>26)</sup>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신의주형무소에서 복역 한 후, 1930년 2월 2일 만기 출옥하였다.<sup>27)</sup> 원세훈은 1931년부터 시사주간지 『중앙시보』의 편집장과 주

23) 한민당발기인 명의로 1945년 9월 8일 공포된 인공 배격 성명서와 함상훈이 쓴 「한국민주당의 정전, 『大潮』 1946년 7월호)에 따르면 35명, 『매일신보』 9월 4일자에 따르면 57명이 모여 여운형과 안재홍의 신임투표를 하였는데, 18대 17의 1표 차이로 정·부 위원장이 겨우 그대로 유임되었다고 한다.(송남현, 앞의 책, 1976, 74쪽.) 물론 당시 투표는 이만규의 증언에 따르면 권태석의 주장에 따라 여운형과 안재홍 사임건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권태석은 안재홍에 대한 공산주의세력의 반대기류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했을 것이다. 때문에 안재홍에 반대하는 공산계열이 대거 사임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 추측되지만, 여운형도 같이 묶여 있는 사임건이 단 1표차로 부결되었다는 것은 건준내 기류가 기존 연구들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여운형조차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세한 것은 윤덕영, 앞의 논문, 2010, 850~852쪽.

24) 당시 인공과 관련한 조공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윤덕영, 『해방직후 사회주의진영의 국가건설운동』, 『학림』 14, 1992; 김무용,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노선과 조선인민공화국』, 『한국사학보』 9, 2000; 이현주, 「조선공산당의 권력구상과 조선인민공화국」, 『한국근현대사연구』 36, 2006.

25) 원세훈의 민족유일당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조규태, 앞의 논문, 2012.

26) 『동아일보』 1928.6.27.



간을 역임했다. 박명환에 따르면 그는 정세분석에 대한 상당수의 논설을 필명으로 작성했다고 한다.<sup>28)</sup> 당시 그의 시평이나 논설은 중국 정세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sup>29)</sup>

『삼천리』 1932년 3월호에는 당시의 그의 사상 및 민족운동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논설이 두 개나 실린다. 우선 「지도단체와 지도이론 확립론」의 논설에서는 그는 조선 민중을 지도하는 사상들인 유교, 기독교, 천도교 등을 비롯한 많은 사상들이 “正信과 미신, 선도와 사기의 차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두 50보와 100보 간의 비과학적 신비설로써 민중을 인간사회로부터 그 무슨 판 세계로 끌고 가자는데 지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기미년 이후 ‘맑스와 레닌의 사회주의사상’이 들어와 ‘사회주의자는 시대의 선구자, 대표자, 혁명가’로 인식되었다면서, 이 때문에 조선의 종교들도 사회주의 색채를 가지게 되었다고 파악한다. 그럼에도 민족운동에 대한 사상계의 혼돈이 심하고 지도이론이 수립되지 못했다면서, 지도이론은 생존과 번영의 진리를 파악하고, 권위를 가졌으며, 실현될만한 진리와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레닌은 외래의 맑스의 이론으로 러시아를 지도하였고, 쑨원(孫文)은 토산의 민족주의에 사회주의의 이상을 가미하여 신중국의 건설을 기도하였으며, 간디는 인도 종교사상에 경제투쟁을 가미하여 인도사람을 인도하였다면서, “우리가 가질 바의 지도이상과 이론도 오직 우리에게 적절할 여부를 문제로 할지언정, 창작과 차용, 토산과 외래의 구별에는 拘泥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sup>30)</sup> 즉 그는 1930년 전후 극심해지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대립, 외래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토산의 민족주의 사상의 대립에 대하여, 사회주의사상과 사회주의자의 시대적 의의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조선의 현실에 맞는 실현가능한 지도이론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코민테른의 지시만을 맹종하는 사회주의자들을 일정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27) 『조선일보』 1930.2.5; 『동아일보』 1930.2.7.

28) 『삼천리』 4-8, 1932.

29)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설들이 있다. 『수난의 중국은 어디로, 파산? 재건?』, 『동광』 32, 1932; 『일중사변과 태평양 풍운』, 『삼천리』 4-7, 1932.

30) 『삼천리』 4-4, 1932, 8~13쪽.

호인 춘곡(春谷) 명의로 게재된 「민족과 계급관계의 구명-나의 BAC적 멧가지」 논설에서는 “계급적 입장에서 입론하고 문제를 취급한다면 그것을 시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민족적 입장에서 입론하고 문제를 취급한다면 그것을 낙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면서, “계급적 입장에서 문제를 취급하여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혹은 뛰어 넘치는 속론과 空談의 오류를 범하는 논자도 있고, 민족적 입장에서 문제를 취급하더라도 조류에 순응하며 시대에 적응하는 정론을 발하는 논자도 있을 것이다”고 전제한다. 그는 “현대 인류 사회에는 두 가지의 큰 불행이 있으니 하나는 자본주의에 의하여 생긴 계급적 대립의 불행이요, 하나는 제국주의에 의하여 생긴 민족적 반목의 불행”이라면서, “현조선의 사람으로서 현 조선을 망각 혹은 불고하고 선진제국의 원칙과 이론을 그대로 복사할려는 경향이 있다면 잘된 경향이라 할 수는 없다. 조선의 땅은 식민지이며 조선의 사람은 식민지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의 당면문제를 민족적 생존과 번영이라 하는데서 이의가 없지 아니할 것”이라면서, “모든 주의와 이론이 이것을 당면의 문제로 한 뒤에야 수립될 것이며, 모든 분투와 노력이 이것을 당면의 문제로 한 뒤에야 출발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공상과 徒勞에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서로 계급적 이해를 달리하는 유산과 무산계급을 “『민족적』이라는 한마디로써 포괄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의의를 박약케 하며 부르주아의 허위적 용어를 助勢하여 주는 말이다. 무엇이나 『민족적』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그다지 많지 못하고 계급적으로 취급하여할 문제가 열의 7, 8이나 된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식민지이며 후진 제국에 속하는 조선”에서는 “각 계급을 포함한 것이지만 『민족적』으로 우려되며, 문제되는 생존과 번영의 당면적 문제의 표준은 전 민족 내에서 절대다수인 농민, 노동자, 도시 세민층의 생존과 번영에 있고 이 표준 하에서 민족적 생존과 번영을 당면의 문제로 취급하자”고 주장한다. 그는 조선인의 “무식자의 수가 전 민족의 4할이 넘고 유식인지? 무식인지? 불분명한 것이 전 민족의 1할 이상이며, 이것을 합하면 그 수가 1,060여 만인으로서 거진 전 민족의 6할이나 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무식자는 의식을 얻을 수가 없고

의식을 얻을 수 없으면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이러한 무식자와 기타 노농대중의 생존과 번영에 관한 문제를 민족적으로 당하는 급박한 당면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오직 당면한 문제를 당면한대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문제가 민족적 생존과 번영에 관한이만치 민족적 총역량을 집중하여서 해결의책을 강구하며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주의 를 가지고 논란할 시간이 아니다.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에 노력할 것뿐인가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1)</sup>

원세훈은 ‘민족적’이라는 용어로 유산계급과 계급적 이해를 달리하는 무산계급의 이해를 망각하게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계급적 문제가 주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식민지이나 후진제국인 조선에서는 민족 내 절대 다수인 무산대중의 생존과 번영이 민족적 생존과 번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현재 경제공황의 생존위기 속에서는 주의를 가지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총역량을 집중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그의 주장은 당시 계급 대 계급 전술을 내세우며 민족주의세력 전체를 민족계량주의로 공격하던 당재건운동과 혁명적 농노조운동자들,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을 주장하던 사회주의자들과는 사뭇 다른 주장이라 하겠다.

1931년 7월 만보산사건과 9월 일제의 만주사변을 거치면서 만주문제가 큰 이슈가 되자, 원세훈은 만주조난동포위문협의회 조직에 참여하여,<sup>32)</sup> 서무상무위원에 선임되었다.<sup>33)</sup> 1932년 8월에는 유광열 등과 조선문필가협회 결성을 주도하여 위원장에 선임되었다.<sup>34)</sup> 박명환은 원세훈에 대해 “씨는 6尺 거구에 稟稟한 기풍이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히 거인의 품모를 연상케 한다”면서 “18년이란 긴 세월을 해외에 있어, 민족운동자로서의 큼직한 발자취를 남긴 역사”를 가졌다고 평가한다. 성격적으로도 “친구를 신뢰하고 애호 하며 건설한 점 등은 씨를 아는 사람이면 다 승인하리라. 그리고 선량하면서도 일면 强腹한 데로적 기풍이 躍如한 것을 보아 씨에 과거의 일면을 엿볼

31) 『삼천리』 4-4, 1932, 13~17쪽.

32) 『동아일보』 1931.10.29; 『조선일보』 1931.10.29.

33) 『동아일보』 1931.10.30; 『조선일보』 1931.10.30.

34) 『동아일보』 1932.8.3., 8.9., 8.11.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세훈의 저널리스트의 능력에 대해 “씨는 某誌를 본진으로 하고 同誌 중요 기사 대부분에 건필을 두르고 있는 숨은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경이의 눈을 뜨고 다시 한 번 씨를 쳐다보았다. 씨는 본명 외 다수한 닉명으로 주로 시국관계 평론을 모지에 매 호마다 즐기치게 쓰고 있으며, 此外에도 『삼천리』를 위시하여 몇몇 잡지에 씨의 글이 빠지는 달이 없었다. 씨의 논하는 문장자체의 비판 여부는 차치하고 그 양에 있어 다량인 것에 우선 놀랐다”고 평하였다.<sup>35)</sup> 박명환은 원세훈이 출옥한 후 신간회를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났는데, 이후 같은 언론계에 있으면서 가까워졌고, 이런 관계는 해방 후 그들은 정치활동을 같이하기에 이른다.

원세훈은 중국 최초의 역사서인 『춘추』를 해설한 『좌전』을 항상 애독했다고 하며, 1933년에는 다윈의 진화론과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대조적으로 읽어 보겠다고 하였다.<sup>36)</sup> 선배 민족운동가에 평에 있어서도 원세훈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이동휘와<sup>37)</sup> 신채호<sup>38)</sup>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애도하고, 그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안창호에 대해서는 인정식과 주요한의 안창호논쟁에 대한 비평에서 양자를 다 비판하면서, 안창호가 서북지방당의 지방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제한적으로 평가했다.<sup>39)</sup> 그는 기독교나 천도교에 기반한 운동들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해방직후 8월 16일 원세훈은 서울로 올라왔고, 8월 18일 이민홍, 이병헌, 현동완, 유홍산, 한학수, 박명환, 송남현 등과 함께 한학수의 사랑채에서 고려민주당을 결성했다. ‘진정한 사회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국민경제에 자유성과 계획성을 적당히 부여하고 이윤 추급의 폐해를 시정”할 것을 강령으로 내세웠다.<sup>40)</sup> 그렇지만 독자적인 정당 결성으로 발전시키지는 않았고, 곧이어 신간회 중앙간부였던 김병로와 조병옥, 명망있는 법률가들이인 이인·김용무

35) 『삼천리』 4-8, 1932.

36) 『조선일보』 1933.9.13.

37) 『삼천리』 7-3, 1935.

38) 『삼천리』 8-4, 1936.

39) 『삼천리』 8-8, 1936.

40) 송남현, 앞의 책, 1976, 123~124쪽; 송남현, 앞의 책, 1990, 244~246쪽.

등과 함께 8월 28일 조선민족당(대한민주당) 정당 발기회에 합류하였다.<sup>41)</sup>

## 2) 조선민족당(대한민주당)의 결성과 김약수·유진희의 참여

조선민족당에는 원세훈 뿐만 아니라,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에 참여 했던 인물들도 여럿 참가하는데, 그 대표적 인물인 김약수와 유진희 이다. 김약수는 8월 22일 건준 제2차 중앙조직일 발표될 때, 중앙집행위원으로 이름을 올린다. 그리고 재건과 조공이 주도하여 9월 1일 발표된 135인 확대 중앙집행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다. 그렇지만 김약수는 조공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해 간 건준에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도리어 조선민족당 결성에 합류하고, 이후 한민당 발기에 나서게 된다. 송남현은 이에 대해 원세훈이 김약수와 유진희를 건준 사무실에서 만나 “공산주의운동을 청산하고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마침 두 사람이 공산주의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던 터여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한민당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sup>42)</sup>

김약수는 1892년 경남 동래출신으로,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 그룹 북풍파의 지도자였다. 그는 1925년 12월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1928년 2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sup>43)</sup> 1931년 6월 6일 만기 출옥하였다.<sup>44)</sup> 일제 경찰의 집중 주목을 받고 있는 그는 출옥 후 당시 조공 당재건운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김약수는 코민테른 제 6회 대회이후의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흐름, 사회민주주의와 민족주의세력에

41) 이때의 조직 명칭에 대해서는 각종 회고록과 전기에서 조선민족당과 고려민주당으로 혼재되어 있고, 1948년 간행된 『한국민주당소사』에서는 조선민족당이라고 하고 있으며, 당시 매일신보에는 대한민주당으로 명기하고 있다. (『매일신보』 1945.9.9., 9.17.) 그런데 한국민주당을 작명할 때 한국국민당과 다른 한 당의 명칭을 반반씩 가져와 작명을 하였다는 증언으로 보아서는 매일신보에 나온 대한민주당이 정확하지 않은가 하는데, (백남훈, 『한국민주당 창당 비화』, 『眞相』, 1960년 4월호), 공식 『한국민주당소사』에서 조선민족당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조선민족당으로 기억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42) 우사연구회 엮음, 심지연 지음, 『송남현 회고록 - 김규식과 함께 한 길』, 한울, 2000, 67쪽.

43) 『조선일보』 1928.2.14.

44) 『동아일보』 1931.6.6.

대한 협력보다는 타격론을 주장하고,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하의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을 주장하는 흐름에 같이 하고 있었다. 이는 그가 관여한 잡지 활동과 논설에서 드러난다.

김약수는 북풍파 출신의 송봉우가 편집겸 발행인으로 1931년 5월부터 간행한 『비판』 잡지에 일정하게 관여한다. 김약수는 비판지에 몇 편의 기명 논설을 발표한다. 한편 ‘비판의 비판’이란 일 기자 명의의 논설란은 『비판』지의 성격을 드러내는 글인데, 김약수도 이에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약수는 진영철(김경재)과 조선사회운동에 대한 논쟁을 전개하는데, 그 내용을 통해 그의 생각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재는 『해성』 1931년 10월호에 발표한 「조선운동의 신 전망-민족문제의 테제」에서 “식민지민족운동은 농업혁명을 그 중심적 문제로 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며,<sup>45)</sup> “민족개량주의자와 좌익민족주의자간의 엄밀한 구분” 해야 한다면서, 좌익민족주의자를 사실상 민족개량주의와 동일시하여 그들의 혁명적 역할이 다하였다고 배격하는 태도를 속류적 맑스주의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도시소시민층을 포함한 반제요소 전체를 망라하고, 좌익민족주의자들과의 제휴 내지 중립화하는 전술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6)</sup>

김경재 논설에 대한 대응은 그가 주로 공격한 민족부르주아지 및 소부르주아지, 좌익 민족주의세력보다는 사회주의 세력 내부에서 즉각 제기되었는데, 김약수는 그 선봉에 가담하였다. 그는 『비판』 1932년 2월호에 발표한 「조선운동의 신 전개」 논설에서 김경재의 주장을 다각도로 비판하였다. 김약수는 현재 좌익민족주의자와 혁명주의자의 사이에 격화된 반목의 관계가 우연한 돌발성이 아니라 이론적 역사적 실천적 표상이라면서, 좌익민족주의자들이 민족과시즘에 심취하여 혁명주의자들을 공격하고 방약무인의 폭군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중이 그들의 영향 하에 유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한다. 때문에 그는 현재의 조선의 현실에서는 원칙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반혁명적인 민족개량주의자보다도 비분

45) 『해성』 1-7, 1931, 4~16쪽.

46) 『해성』 1-7, 1931, 15~16쪽.

강개의 공권(空拳)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좌익민족주의자가 사실상 위험지주(危險支柱)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좌익민족주의자들과 협동전선을 운위하는 것은 좌익민족주의자의 군분에 투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혹평하였다. 세계 각 전위들이 사회민주주의자에 대해 무자비한 폭로전술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좌익민족주의자들에 대한 고도의 폭로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개량주의자와 급진적 소부르주와지와의 구분보다도 오히려 급진적 소부르주와지와 그 영도하에 있는 대중과를 구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좌익민족주의가 “골격 골색이 전혀 동일한 민족개량주의의 일 변종”이라는 코민테른 6차 대회 이후의 좌익파시즘론, 사회민주주의 타격론을 그대로 조선의 사회운동에 적용하고 있었다고 하겠다.<sup>47)</sup>

김약수는 『비판』 1932년 4월호 「민족적 협동문제의 귀결-혜성지 3월호의 진영철군의 소론에 의함-」 논설에 이런 주장을 재차 반복하였다. 그는 “조선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그것은 좌익민족주의자의 영향 하에 있는 농민층을 동맹자로 한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대행자인 동시에 사실상의 전담자가 되는 것”이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무조건적인 협동설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좌익민족주의자의 배후에 있는 소부르주아지 중의 혁명적 요소인 빈곤한 하부 부대를 그들의 영향으로부터 분리시켜 무산계급의 진영에로 전취함에 있다는 것을 다시 주장한다. 왜 그러나하면 그 대중투쟁의 압력에 의해서만 좌익민족주의자의 중의 혁명적 분자를 무산계급의 진영에로 흡수할 수 있는 까닭이다”고 하였다.<sup>48)</sup> 그는 당시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 그 외 혁명적 농노조운동 만 무산계급의 운동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천도교의 조선농민사계나 이성환의 전조선농민조합계등의 농민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특히 “협동조합운동에 이르러는 그것은 오늘 현상에 있어서는 오직 기만일 따름”이라고<sup>49)</sup> 일축하였다.

당시 조공 당재건운동과 혁명적 농노조운동을 전개하던 사회주의자들과

47) 『비판』 10, 1932, 32~37쪽.

48) 『비판』 12, 1932, 54쪽.

49) 『삼천리』 4-3, 1932.

거의 비슷한 주장을 전개하였던 김약수는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의 선봉에 서있었지만, 현실운동에는 깊이 관여하지 못했다. 다만 당재건운동자들이 주도하였던 조선제사주식회사 동맹파업 및 종연방직 격문살포사건에 연루되어, 1932년 9월에는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60여 일 동안 동대문서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다.<sup>50)</sup> 한편 1932년 11월 천도교청우당과 유진희가 편집 발행인인 신계단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천도교정체폭로비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천도교 측과 앞장서서 대립했다. 또한 “나는 일제의 조선 운동에 취하여 조금도 주저치 않고 단연한 역사적 낙관주의를 취한다.”라고<sup>51)</sup> 하면서 당시 사회주의운동의 전개에 대해서도 기대를 놓지 않았다.

1933년 3월에는 변호사 이인의 재정적 지원 하에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잡지 『대중』을 창간하였다. 당시 그는 원경목, 신갑범, 이갑기 등과 대중과학 연구사를 조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잡지를 간행하였다. 박종린이 설명한바와 같이 사회주의 이론 및 활동에 대한 소개, 그리고 종교비판에 상당분량을 할애하였다.<sup>52)</sup> 또한 당시 동아일보나 천도교의 지원 하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협동조합운동에 대해 좌파적 입장에서 이론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글들도 다수 실었다. 그렇지만 『대중』 잡지의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김약수는 1933년 7월 일시 일제 경찰에 피검되기도 했고,<sup>53)</sup> 그 이후 더 이상 『대중』을 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김약수는 1935년 전후부터 그 입장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는 1935년 상반기에 2달여간 도쿄에 다녀왔는데, 도쿄에서는 혼고구(本郷區)의 다카쓰 마사미치(高津正道)집에<sup>54)</sup> 거주하였다. 귀국직후 1935년 7월 삼천리

50) 『동아일보』 1932.10.31.

51) 『삼천리』 4-9, 1932.

52) 박종린, 「대중해제」, 『근대서지』 4, 2011, 174~175쪽.

53) 『조선일보』 1933.7.15~16.

54) 다카쓰 마사미치(高津正道)는 1893년생으로 와세다대학 재학 중 효민회 조직에서 활발히 활동하였고, 1921년 사회주의동맹 설립에 참여하였다. 1922년 제1차 일본공산당 결성에 참여하였다가 소련으로 망명했고, 1925년 귀국 후에는 공산당 활동과는 거리를 두었다. 노동농민당에 참여했고, 노농파가 주도한 무산대중당 및 일본대중당 결성에 참여했다. 코민테른 7회대회 이후에는 일본 인민전선운동에 참여했다. 전후 일본사회당 창립에 참여했고, 중의원 부의장과 양원의원총회장을 역임했다. 김약수와는 효민회 활동때부터 친분이 있었다.



기자와의 문답에서 “나는 전에 동경에 유학 갔을 때는 『계급』을 배워 알았고, 이번에 동경에 갔다 와서는 『민족』을 깨달아 알았어요.”라고 토로한다.<sup>55)</sup> 삼천리사는 1935년 8월호에서 김약수의 발언을 “이번 동경에 여행 갔다가 비상시 일본의 모든 자태를 바라보았든 중 팟쇼 추세 하에 놓힌 『민족』의 특수성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었다” 것으로 정정한다.<sup>56)</sup> 당시 김약수는 일본에서 파시즘 세력의 대두와 활동에 큰 관심 두고 있었다.

파시즘 세력이 대두하는 국제정세의 변동 속에서 그의 민족주의세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변화하였다. 1935년 7월 조선일보사가 방응모사장 체제에서 신사옥을 짓고 낙성식을 거행하자, ‘경사로운 낙성식을 거행’한다면서, 낙성식에 안재홍을 초청한 것은 “이주 잘 생각한 일로서 누구든지 찬양할 만한 쾌한 일”이라고 칭찬하였다. 또한 ‘비약적 발전’을 축하하며, ‘활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물론 “조선 노동자농민대중을 중심으로 삼은 것이 아니면 참다운 대중의 여론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면서 조선일보가 앞으로 그 지침을 바로잡아 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sup>57)</sup> 전체적으로 안재홍을 비롯한 좌익민족주의자들을 민족개량주의자나 다름없다면서 맹공을 퍼 부고, 조선의 자본가와 민족부르주아지들을 일체의 주구나 마찬가지로 간주했던 1932년 전후와는 크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김약수는 1941년 8월 25일 경성 부민관에서 개최된 삼천리사 주최 임전대책협력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오는데,<sup>58)</sup> 경기도 경찰부의 문서에는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사임하고 회의에 사교 결석했다고 한다.<sup>59)</sup> 그렇지만 일제 말기에도 반전 운동을 기도하는 등 전향하지는 않았다.<sup>60)</sup>

황석우는 김약수에 대해 “약수군은 사람으로서는 다정다한한 인물, 샷트

55) 『삼천리』 7-6, 1935.

56) 『삼천리』 7-7, 1935.

57) 『조선일보』 1935.7.6.

58) 『삼천리』 13-11, 1941.

59) 京畿道 警察部長, 『思想에 관한 情報 13, 臨戰對策協議會 開催에 관한 件』, 京高秘 제2397호의 1, 1941.8.2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had\\_167\\_0910](http://db.history.go.kr/id/had_167_0910)

60) 김종범·김동운 지음, 『해방전후의 조선진상 : 제2집 독립운동과 정당 급 인물』, 조선경정연구소, 1949, 149쪽.

한 인간미에 있어서는 유진희군보다 낮은 점이 많다. 머리도 치밀한 편이다.”라고 평하였다.<sup>61)</sup> 1935년 3월에 삼천리사에서 ‘조선민족의 지도자 총람’이란 특집으로 11명의 필자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조선민족의 지도자 한 명씩을 선정하여 그 이유를 쓰도록 의뢰했다. 이때 1931년에서 32년에 걸쳐 조선 사회운동 방향을 두고 김약수로부터 인신공격에 가까운 논박을 당했던 김경재가 김약수를 민중의 지도자로 추천하였다. 그는 김약수를 “나의 경의하는 친우요 동지”라 하면서, 김약수가 “암전하고 새침한 성격이건만 남에게 지기는 상당히 싫어하는 인품”이지만,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회의를 주도하며, 남을 공격하는데 장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하였다.<sup>62)</sup> 같은 북풍과 출신인 김종범은 “씨는 일생을 시종일관한 혁명가이며 풍운아이며, 수절자이다. 그뿐 아니다. 씨의 유일한 특색과 장점은 두뇌가 명석하며 정견이 초중하며, 백전불굴하는 대담 차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의 일인으로 모사책사로는 조선에 희유한 인물이라는 평을 동지 간에 받아왔다.” “친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나 한번 알아 놓으면 친구나 동지는 고락을 같이하며 동지 가정의 경비사에까지 철저한 원호”를 한다고 하였다.<sup>63)</sup>

해방직후 원세훈이 한민당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는 인물 중에는 김약수 외에도 일제하 대표적 사회주의 이론가였던 유진희도 있었다. 1893년 충남 예산 출신인 유진희는 사회주의운동 그룹 화요파 출신으로 1925년 12월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는 1928년 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1931년 2월 1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만기 출옥하였다.<sup>64)</sup> 1931년 7월 만보산사건과 9월 일제의 만주사변을 거치면서 만주문제가 큰 이슈가 되자, 유진희는 만주조난동포위문협의회 조직에 참여하였다.<sup>65)</sup> 황석우는 유진희에 대해 “유군은 조선의 불세비즘 이론의 선구자, 김한과 좌우의 위를 따올 사상계의 선구자이다. 유군은 이론가”라고 하면서, 김약수와

61) 황석우, 「사상계의 2인평」, 『삼천리』 4-5, 1932.

62) 『삼천리』 7-3, 1935.

63) 김종범·김동운 지음, 앞의 책, 179쪽.

64) 『동아일보』 1931.2.20; 『조선일보』 1931.2.20.

65) 『동아일보』 1931.10.29; 『조선일보』 1931.10.29.

비교하여 “사상적 실력, 이론의 실력에 있어서서야 兪군의 상대가 아니다”라고 평하였다.<sup>66)</sup>

1932년 10월 유진희는 『조선지광』의 후신으로 『신계단』을 창간하여 발행인 겸 편집인이 되었다. 『신계단』의 창간사과 권두언은 없다. 박찬승이 이미 지적인 것처럼 홍일우 필명의 『반동문화의 도량』이 권두언 격인 맨 앞에 실렸는데, 그 내용은 동아일보와 그 추종자인 몰산장려회·홍사단·수양단 등의 민족개량주의자들이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잡지들과 대결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신계단』은 『비판』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동아일보·수양동우회·천도교 세력 등 거의 모든 민족주의세력을 민족개량주의로 비판하면서 공격하였다.<sup>67)</sup> 『신계단』은 1930년대 전반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을 내세운 신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필진으로 대거 참여하였고, 그 선봉에 서있었다.

1932년 11월 『신계단』 종교시평에서 남만희가 천도교를 강하게 비판하자, 논설에 항의하러 이응진을 비롯한 천도교청우당 사람들이 유진희를 찾아왔다. 유진희가 사과요구를 거부하자 폭행을 당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천도교정체폭로비판회가 구성되고, 사회주의세력의 반천도교 투쟁이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1933년 초 『비판』과 『신계단』에 비판논설이 게재된 것을 제외하고, ‘천도교비판연설회’가 일경에 집회금지 당하면서 실제적인 활동이 없이 곧 마무리되고 만다.<sup>68)</sup> 『신계단』은 1933년 7월호인 통권 10호를 발행하고 중단된다. 8·9월 합본 광고가 신문가 게재되기는 했는데, 발간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후 유진희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의 선봉에 서있던 그가 어떠한 이유와 경로로 생각과 입장을 바꾸고 행로를 변경하게 되는지는 현재까지 잘 알 수 없다. 1893년생인 유진희는 1892년생인 김약수와 자주 어울렸는데,<sup>69)</sup> 그의 변화는 김약수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66) 황석우, 「사상계의 2인평」, 『삼천리』 4-5, 1932.

67) 박찬승, 『언론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41~246쪽.

68)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최보민, 「1930년대 초반 반천도교운동에 나타난 ‘사회주의 그룹’의 활동과 인식」, 『역사연구』 34, 2018, 94~105쪽.

69) 삼천리 기자는 “두 분 다 일방의 거인이다. 더구나 『컴렛드』라 하여, 그 사이에 같은 노내끈에 얽매

것으로 보인다. 해방 전에는 성북정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지냈다. 그렇지만 1941년 8월 경성 부민관에서 개최된 삼천리사 주최 임전대책협력회에 참가하였다.<sup>70)</sup>

해방직후 조선민족당(대한민주당)과 뒤이은 한민당 결성에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김약수와 유진희가 참여한 구체적 배경은 원세훈의 역할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45년 8월 건준과 민족주의세력의 2차회에 걸친 협상의 무산, 조공계열의 급격한 해계모니 전취과정은 건준 내의 비주류 사회주의자들, 우파 사회주의세력들에게 조공이 주도하는 방향과 이후 한민당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하였다. 그리고 이런 선택에서 1920년대 조선공산당의 간부였고, 1930년대 전반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을 선봉에 서서 전개했던 김약수와 유진희는 과거의 몸담은 좌익진영을 버리고, 우익진영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느꼈던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가 건준 과정에서 보였던 조공계열의 조급한 해계모니 전취와 무리한 방법 등에서만 나온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1930년대 이래의 일련의 과정에서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후배 공산주의세대의 선배 세대에 대한 무시와 배제,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의 선봉에 서서 싸웠음에도 ‘운동에서 탈락한 소부르주아 계급’이라는 냉대와 조소, 스탈린체제이후 노골화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냉혹하고 치열한 권력투쟁, 소련 방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코민테른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모순적 정책, 코민테른 해체로 귀결된 일국 사회주의론의 한계, 그럼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소련에 대한 사대주의적이고 추종적 태도 등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건준에서 인공 수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이는 조공계열의 모습은 그들이 느끼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누적된 결과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

---

어 별장에도 함께 가서 한 술 밥과 한 움큼의 물을 마시기를 5, 6년씩 하든 사이라, 남들이 보기에 두 분은 골육을 서로 버려줄 친형제 같은 사이라 하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서, 두 분은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나서 싸우는 사이도 아니다. 다만 두 분의 친밀농도가 세상사람 각과는 다소 차이 있음을 말하여 둘 뿐이다.”라고 평하였다. 『드른 風月記』, 『삼천리』 7-8, 1935.

70) 『삼천리』 13-11, 1941.

현실에서도 1930년대 중반 들어 김약수와 유진회는 공산계열의 인물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들은 김종범과 서정희 등 과거 북풍파의 인맥이 있는 인물들 외에도 원세훈, 박명환, 그리고 동아일보 주필로 민족주의세력으로 완전히 전향한 김준연 등과 자주 어울렸다. 또한 김항규, 김병로 등 신간회 중앙지도부를 이루었던 민족주의자들과도 자주 어울려 지냈다. 이런 현실적 인간관계가 해방직후 한민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다.

김약수는 자신이 해방 후 사회주의 진영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도라는 것은 비약의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 제도라는 것은 발명이 아니라 한 개의 발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면서, “조선 정치운동의 현단계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 임을 직시한 까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민당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남조선에서 민족적 총역량을 결집할 필요”에서 참여하였고,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다고 자평한다. 그는 조선이 “단일민족으로서 또는 자본계급이 발달되지 못한 지대”에 있기 때문에 “계급투쟁보다도 민족적 총명에 의하여 계급투쟁을 면할 수 있다” 주장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려면 정치형태는 불가분 의회중심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1)</sup>

### 3) 한국민주당의 결성과 정노식의 참여

조선민족당이 결성될 즈음인 8월말, 다른 한편으로 장덕수, 백남훈, 김도연, 최윤동, 홍성하, 이순탁, 구자옥, 유억겸, 윤보선, 윤치영, 허정, 정노식 등을 중심으로 한국국민당 발기회가 개최되었다. 거의 대부분이 민족주의계열 인물들인데, 과거 상해파국내부에 참여하였던 사회주의계열의 정노식이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정노식은 1891년 전북 김제 만경 출신으로 1910년 12월 서울 경성기독교 청년회관(YMCA)에 입학하였다. 1912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세이소쿠영

71) 『백민』 5-1, 1949, 107~108쪽.

어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지대학 정치경제과에 진학한다. 조선유학생학우회에서 활동하면서, 장덕수 김철수 등과 신이동맹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19년 2·8독립선언에 참여하였고, 3·1운동에서는 48인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구속되었는데,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920년 6월 사회혁명당 결성에 참여하였고, 1921년 5월 상해파공산당이 창립된 후, 사회혁명당이 상해파 고려공산당 국내부(국내 상해파)로 전환될 때 간부로 선임되었다. 1920년 12월 조선청년회연합회 창립에 참여하였고, 1922년 4월에는 조선청년회연합회의 집행위원장에 선임되었다. 11월에는 민립대학기성준비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조선청년회연합회는 당시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장려운동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1923년 1월 조선물산장려회 창립준비위원이자 창립총회전형위원으로 활동했고, 창립 이사로 선임된다. 정노식은 1923년 4월 청년회연합회 제3회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상무집행위원장에 연임하지만, 10월 제4회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사직한다.<sup>72)</sup> 물산장려운동을 둘러싼 논란과 운동 부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해파는 1923년 국내 사회주의운동이 재편되면서 이합집산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노식은 특정 사회주의운동 정파에 가담하지 않는다. 1924년 4월 조선청년동맹 창립총회가 개최될 때 전형위원으로 선정되었다.<sup>73)</sup> 그렇지만 그 직후 운동 일선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간다. 동아일보의 1925년 10월 4일 기사에서는 고향에서 사회주의를 연구한다는 동향 보도가 있었다.<sup>74)</sup> 1927년 4월 이상재 사망 시 장의위원으로 선임되었다.<sup>75)</sup> 1931년 7월 만보산사건과 9월 일제의 만주사변을 거치면서 만주문제가 큰 이슈

72) 국내상해파와 조선청년회연합회의 물산장려운동 참여와 운동론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윤덕영, 『1920년대 전반 조선물산장려운동 주도세력의 사회운동론과 서구 사회주의 사상과의 비교』, 『동방학지』 187, 2019.

73) 『동아일보』 1924.4.24.

74) 『동아일보』 1925.10.4.

75) 『동아일보』 1927.4.2; 『조선일보』 1927.4.2.

가 되자, 10월 민주조난동포위문협의회가 결성되었다. 11월 지방협의회 위원을 증선 할 때 정노식이 위원으로 선정되었다.<sup>76)</sup> 1935년에는 조선어학회가 주관한 조선어표준어 사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였다.<sup>77)</sup> 이를 전후로 하여 정노식은 판소리 연구에 몰두한다. 1938년 어조동실주인(漁鳥同室主人)이란 필명으로 『조광』에 「조선광대의 사적 발달과 가치」를 게재한다.<sup>78)</sup> 그리고 1940년 1월 조선일보사에서 『조선창극사』를 출간한다. 현재도 판소리연구에 있어 이론적 발판이 되고 있는 이 책은 판소리와 여러 문인들이 쓴 시문이 망라되어 있다.<sup>79)</sup> 책 간행을 전후로 서울에 자주 올라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1941년 8월 경성 부민관에서 개최된 삼천리사 주최 임전대책협력회에 참가하였다.<sup>80)</sup>

한편 정노식은 『비판』 1938년 4월호에 「三仙獨語」란 제목으로 같이 국내 상해파에서 활동하였던 김명식에게 보내는 형식의 글을 게재한다. 그는 ‘방랑한 생활’을 계속하기만 하고 서책을 놓은 지가 20년이라 자조하면서, 금년에서야 독서와 사고로 인격수양을 힘쓰고자 한다고 하고, 그렇지만 수준 낮은 하루살이 글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넘쳐난다고 비판하였다. 다만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는 우리 학계의 이채를 발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는 현재 조선의 급무가 농촌구제라면서, 생활이 풍족해야 높은 이상과 찬란한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농촌을 지도할 이론과 그 피해를 구제할 정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면서 비판자가 농촌문제 연구호를 발간하거나 좌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sup>81)</sup>

또한 『비판』 1938년 6월호에는 「인간정조론」을 발표한다. 그 내용은 남녀

76) 『조선일보』 1931.11.6.

77) 『조선일보』 1935.8.6.

78) 『조광』 4-5, 1938.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보형, 「정노식의 ‘조선광대의 사적 발달과 가치’에 대하여」, 『판소리연구』 1, 1989 참조.

79) 『조선창극사』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장석규,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 대한 의문점」, 『판소리연구』 8, 1997; 김지영, 「정노식의 <조선창극사> 연구」,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이진오, 「정노식의 행적과 조선창극사 저술경위」, 『판소리연구』 28, 2009; 이진오, 「정노식의 생애 연구-행적과 교유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3, 2015.

80) 『삼천리』 13-11, 1941.

81) 『비판』 1938.4.

간통문제에 있어 여자의 간통만 처벌하고 남자의 불의는 처벌하지 않는 일본 법률체계를 비판하면서, 간통을 처벌하지 않되 도덕적 제재를 가하는 영국과 쌍방을 처벌하는 독일의 제도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일본 대학교 남녀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남녀 간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함께 공창제를 인정하는 일본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sup>82)</sup> 해방 직후 정노식이 한국국민당 결성에 참여한 경과는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같은 국내 상해파 활동을 했던 장덕수와와의 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1945년 8월말 조선민족당과 한국국민당으로 일단 집결한 세력들은 곧바로 합동협상을 전개한다. 9월 2일 조선민족당에서 김병로·백관수·원세훈이 협상 대표로, 한국국민당에서는 장덕수·백남훈·정노식이 협당대표로 나서, 양당의 합동을 결의하였다. 그 결과 9월 4일, 낙원동 소재 협성실업학교에서 한국민주당 발기회를 개최하여 90명의 강령 정책위원을 선임하였다. 또한 책임자로 총무부에 김병로, 계획부에 장덕수, 조직부에 김약수, 지방부에 정노식, 재정부에 박용희(朴容喜), 선전부에 함상훈, 정보부에 박찬희, 조사부에 이중화, 심사부에 김용무를 부장으로 선임하였다.<sup>83)</sup>

당시 위원 중 일제하 사회주의운동가들로는 김약수, 정노식 외에도 나경석, 원세훈, 유진희, 이극로(李克魯), 이증림(李增林), 이헌(李憲), 아나키스트 이정규(李丁奎) 등도 있었다. 함경도의 상해파와 서상파 출신 이증림이 올라가 있는 것은 의외인데, 어떤 이유에서 올라가 있는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고, 실제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이정규도 실제 활동하지 않았다. 8월 25일 조선어학회를 재건하고 간사장에 선임된 이극로도 조선어학회 활동에 전념하고, 한민당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다만 미군정의 학무국의 위촉으로 조선교육심의회 초등교육부 위원장을 맡고, 1945년 말 송진우의 정계개편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sup>84)</sup> 초기 한민당과는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82) 『비판』 1938.6.

83) 『매일신보』, 1945.9.6. 『자료대한민국사』 1권, 50~51쪽.

84) 이극로는 일제하 한글 보급과 연구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의 지원 하에 활동하기도 했고, 1945년말 송진우가 정계개편운동을 추진하면서, 1946년 1월 10일 국민대회 개최에 상정할 대한민국 헌법



고 보인다. 그 외 사회주의운동 경력은 없지만 사회민주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들로는 서상일과 이순탁 등이 있었다.

한편 재건과 조공 주도로 이루어진 인공의 선포는 정중동 하던 송진우를 비롯하여 상당수 민족주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일선으로 뛰어들게 한 촉매제가 되었다. 1927년 후반 중국 국공합작의 분열과 ML과 조공 세력의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전취론'에 위기의식을 느껴 민족주의세력이 '민족적 총역량의 집중'을 제기하면서 단합한 것과 같이,<sup>85)</sup> 이념적 편차나 정치적 분파에 상관없이 일제하의 갈등과 분열의 앙금을 일단 접어두고 상당수 민족주의세력들이 조기에 단합하기 시작했다. 송진우는 '임정 절대지지', '민족역량 총집결'을 구호로 이를 위한 국민대회 개최를 주장하며, '임시정부 급 연합군 환영준비회'를 기반으로 9월 7일 국민대회준비회를 결성하였다. 국민대회준비회는 송진우를 위원장으로,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송진우의 측근이자 대구 지역 우익세력의 중심인물인 서상일과 사회주의운동 출신의 원세훈을 선임하였다.<sup>86)</sup> 그 후 고문으로 민족주의세력의 원로 권동진, 오세창, 김창숙을 위촉하고, 각 부서를 두어 총무에 김준연, 외교에 장택상, 조사에 윤치영, 조직에 송필만, 정보에 설의식, 경호에 한남수 등을 임명했다.<sup>87)</sup> 이후 송진우는 한민당 발기회 활동에 국민대회준비회의 위원장 명목으로 적극 개입하였다.

그 결과 9월 16일, 천 육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민당이 창당되게 되었다. 9월 21일에는 송진우를 수석 총무로 하여, 각 지역 대표로서 김도연(경기), 조병옥(충청), 백관수(호남), 서상일(경북), 허정(경남), 백남훈(황해), 김동원(평안), 원세훈(함경)의 8총무를 선임하였다.<sup>88)</sup> 당의 영수로 이승만, 김구, 이시영, 문창범, 서재필, 권동진, 오세창 등이 추대되었지만, 송진우가 당

대강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최초 헌법연구위원 11명 중에 들어가 있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참조. 윤덕영, 『미국정 초기 정치 대립과 갈등 구조의 중층성-1945년 말 한국민주당 주도세력의 정계 개편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5, 2014, 289~290쪽.

85) 윤덕영, 『신간회 초기 민족주의세력의 정세인식과 '민족적 총역량 집중'론의 제기』, 『한국근현대사연구』 56, 2011, 46~72쪽.

86) 『매일신보』, 1945.9.8. 『자료대한민국사』 1권, 57~58쪽.

87)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독립을 향한 집념 : 고하 송진우 전기』 동아일보사, 1990, 453쪽.

88) 『매일신보』 1945.9.23;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앞의 책, 460쪽.

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주도하였다.

9월 22일에는 제 1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국 11부와 중앙감찰위원회의 중앙 집행 부서를 선임하였다. 총무사무국장에 나용균, 당무부장 이인, 외무부장 장덕수, 조직부장 김약수, 재무부장 박용희, 선전부장 함상훈, 정보부장 박준희, 노동부장 홍성하, 문교부장 김용무, 후생부장 이운, 조사부장 유진희, 연락부장 최윤동 등 부서장과 부서원을 선임하였고, 김병로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감찰위원 30명을 선임하였다. 또한 경호사령부를 두어 총무와 사령에 서상천, 참모에 한진희를 선임하였다.<sup>89)</sup> 1945년 11월 1일에는 제 3회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부, 훈련부, 부인부의 3부를 신설하고, 청년부장에 박명환, 훈련부장에 서상천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당무부 부장 이인을 신윤국으로, 문교부 부장 김용무를 이관구로, 연락부는 지방부로 개칭하고 부장을 최윤동에서 조현영으로 교체하였다.<sup>90)</sup> 이는 김용무가 미군정의 대법원장으로, 이인이 대법관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었다.

초기 한민당에서 간부로 선임된 우파 사회주의 인물들은 한민당 발기회에서는 조직부장 김약수와 지방부장 정노식이, 한민당 초대 부서장에는 함경도 지역 대표 총무 원세훈, 조직부장 김약수, 조사부장 유진희, 청년부장 박명환 등이 있었다. 원세훈은 송진우가 한민당과 별도로 조직한 국민대회준비회 부위원장을 겸임했다.

### 3. 한국민주당의 초기 활동과 진보적 사회경제정책의 배경

#### 1) 한국민주당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론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역할

8·15직후 한민당의 결성은 일반적 과정이 아니라, 재건과 조공의 건준

89) 『매일신보』 1945.9.24; 송남현, 앞의 책, 129~130쪽.

90) 『자유신문』 1945.11.10.

주도와 뒤이은 인공 선포에 대한 대응과 대결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한민당 발기회가 9월 8일 발표한 첫 번째 성명서는 9월 6일 인공 선포에 대응한 ‘임정 외에 정권 참칭하는 단체 및 행동 배격 결의 성명서’였다. 초기 한민당은 인공 반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의 전제위에서 움직였고, 그에 제한받았다. 한민당이 주장한 임정지지론은 해방 전후 송진우가 앞장서서 주장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절대지지론’에 연장선상에서 있었다.

총재 한민당의 임정지지론에 대해 상당수 연구에서는 친일파가 다수 참가한 한민당이 자신들의 미약한 정치명분을 가리기 위해 임정지지를 일시적으로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정치적 상징조작으로 임정을 이용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지지하지 않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중석은 한민당이 명분하나 만으로 중경임시정부 추대운동을 벌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송진우측이 중경임시정부에 대해 과대하게 기대를 하여, 해외 임정이 들어와 정권을 집행할 것으로 생각한 점이 상당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sup>91)</sup> 김인식은 송진우의 중경 임정 절대지지론이 아무런 대책 없이 해방을 맞이한 그의 ‘無策論’을 합리화하는 면피론에서 나왔으며, 인공과 대립·대항하는 상황에서 임정법통론을 근거로 정국의 주도성을 장악하려는 적대성과 정파성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그들은 중경 임정을 절대 지지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들의 임정지지론은 새로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하나의 과도정권으로 중경임정의 주도권을 일시 인정하는 전술에 불과하였다고 한다.<sup>92)</sup>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송진우와 한민당이 임정과 김구보다는 이승만을 지지했었다고 보고 있다.

윤덕영은 송진우 등 한민당 주도세력은 공산주의세력과의 협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안전장치, 민족주의세력의 주도권이 사전에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중국 국민혁명의 경험에서나, 신간회운동을 비롯한 1920년대 이래 민족운동의 경험에서 확실히 체득

91)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269~270쪽.

92) 김인식, 『송진우 · 한국민주당의 ‘중경임시정부 절대지지론’』, 『한국근현대사연구』 24, 2003; 김인식, 『8·15 해방 후 우익계열의 ‘중경임시정부 추대론’』, 『한국사학보』 20, 2005.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청년 학생과 노동 농민층에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세력을 제어하고 민족운동과 신국가 건설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명분과 정통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점에서 임정은 유효한 보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임정이 민족운동에 있어 갖는 상징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정이 민족주의세력인 한국독립당의 주도 하에 조선민족혁명당 등을 포함한 좌우 연합체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명분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쑨원 주도하의 국공합작에 기반한 중국 국민당정권을 민족혁명단계의 이상적 모델로 생각하고 있던 송진우와 한민당 주도세력에게 민족주의세력이 주도하는 임정은 부족하나마 신정권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성격의 정부였다. 그렇다고 그들이 임정을 과대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임정세력이 민족운동에 있어 갖는 상징성과 정통성이 있는 반면, 국내기반이 전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임정 세력이 귀국 후 자신을 지지하는 국내세력에 반드시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비록 임정을 중심으로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자신들의 영향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민족문제를 중심에 두고 좌·우합작을 통해 당면의 신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보다는 민족주의 세력의 확고한 우위 하에서만 당면의 국민혁명을 추진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송진우의 행동은 중국 국민혁명과정에서 장제스가 보였던 행동과 유사한 것이었다고 한다.<sup>93)</sup>

8·15 직후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근로대중들의 요구는 건준 지부 등의 급속한 전국적 결성에서 드러나듯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지도해야 할 각 지방의 공산주의세력들은 사상적, 조직적으로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었고, 광범한 대중을 결집시킨 대중조직들도 전무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세력들은 인공의 수립을 통해 전국의 건준 지부나 여러 명의로 된 자생적인 자치조직들을 인민위원회로 개편했고, 이런 조공의 정책은 그것 자체로 놓고 보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조선 공산주의세력은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매개로 1945년 하반기 동안에 조선 공

93) 윤덕영, 「송진우·한국민주당의 과도정부 구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론」, 『한국사학보』 42, 2011, 253~260쪽.

산주의운동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전국적 조직망과 광범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인공의 수립은 그들의 경쟁자 민족주의세력, 그리고 민족주의세력과의 협력을 주장하던 일부 우파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대단한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민족주의세력의 대다수는 인공의 선포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공산세력이 해방 후 신국가 권력의 주도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해 간다고 생각했다. 재건과 조공은 8·15 해방직후의 혁명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민족주의세력이 물리적 힘과 조직력을 갖추기만한 시간을 갖지 못한 틈을 타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이는 정세에 대한 오판이었다. 이미 남한은 자본주의국가 미국이 진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미국이 공산주의세력만의 발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은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 낙관하고 있었다. 인공 수립을 통해 급속히 광범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미군의 물리력을 물리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었다. 미군이 조선의 신국가 건설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세력의 상당수를 끌어들이야 한다는 민족통일전선 결성의 필요성과 절실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를 무시했다. 해방 후 혁명적 분위기, 지척인 북한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진주하였다는 것,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공산당 영도권에 대한 조급함이 객관적 정세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인공 수립을 선포했을 때 이에 대한 민족주의세력의 반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20년대 이래 민족운동을 주도하면서 상당한 실력과 광범한 사회적 저변을 갖고 있는 민족주의세력을 단순히 일제에 기생하던 반동부르주아지에 기반한 친일파·민족반역자로 규정함으로써 미군이 들어와 미군정을 실시할 때, 그들이 전개할 수 있는 반혁명 운동의 크기와 영향력을 간과하였다. 일제하에 노정되었던 민족주의세력 내의 지역적·분파적 대립, 그리고 민족주의세력과 우파 사회주의세력의 상호 불신 때문에 이들은 사실 하나의 정당으로 결집되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인공의 선포는 이들의 결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들의 미군정에 대한 협조는 신국가의 주도권을 놓고 공산주의세력

과 싸우기 위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협력이었다.<sup>94)</sup>

한민당의 임정지지론은 국민대회준비회를 통한 송진우의 과도정부 구상과 맞물려 있었다. 그는 일종의 좌익연립정부인 건준이나 인공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내의 정치세력과 민중들의 대표가 참가하는 국민대회를 통해 장차 수립될 신국가의 의회 조직을 만들려고 했고, 국민대회준비회는 그 모태였다. 그가 볼 때 좌익의 건준(인공)이나 해외의 임정은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권력조직이지 근대 민주정치의 모태이자 권력의 기반이 되는 의회 조직은 아니었다. 한민당 주도세력은 기본적으로 근대정당정치를 자본주의적 전망을 지향하는 보수·자유정당과 사회주의적 전망을 지향하는 무산·진보정당이 권력을 놓고 서로 각축하는 정치질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때 중요한 전제는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적 질서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이었다.<sup>95)</sup> 이런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극우 파시스트 정치세력이나 공산주의세력은 경계와 극복의 대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947년초 남조선 과도입법의원과 남조선과도정부의 구도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정이 남조선과도정부의 역할을 맡는 것이고, 국민대회준비회는 과도입법 의원의 산파가 되는 것이다. 1945년 시기에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신국가 건설의 구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송진우의 인식 속에서 국민대회준비회를 통해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임정의 법통을 지지하고 이를 정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송진우의 국민대회준비회 구상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 계열은 1920년대 이래 일본과 세계의 의회제 정당정치를 주목하여 보면서 의회제 하에서의 정부와 의회, 정당과 의회와의 관계 등의 요체에 대해 고민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은 8·15직후 국민대회준비회의 활동을 추진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전면화 되게 된다.<sup>96)</sup>

94) 윤덕영, 앞의 논문, 2011, 263~265쪽.

95) 국민대회에 대해 송진우는 다음 4가지의 결성 강령을 내세웠다고 한다. ① 연합국에 감사를 드린다. ② 국민대회를 열어서 해내·해외의 민족 총역량을 집결한다. ③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3·1운동의 法統)을 지지한다. ④ 보수·진보 두 갈래의 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정당정치를 실현한다. 고희선생전기편찬위원회, 앞의 책, 451~452쪽.

이렇기 때문에 1945년 초기 한민당의 활동은 임정지지론의 확산과 국민대회준비회 활동의 두 축으로 움직였고, 한민당에 참여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에 동원되었다. 우선 국민대회준비회의 위원장 송진우 밑의 두 명의 부위원장이 원세훈과 서상일 이었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의 공통 분모를 가지면서도, 원세훈은 좌파로 서상일은 우파로 그 성향과 운동양상에서 일정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국민대회준비회는 사회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상징적으로 내세움으로서, 국민대회준비회가 좌우의 정치세력을 결집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도록 했다.

10월 23일 이승만이 주도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이하 독촉중협) 결성회의가 열렸다. 송진우와 함께 원세훈이 한민당 대표로 참석했다. 독촉중협 회의에서 이승만은 국내의 정치세력과 정치관도를 철저히 무시했다. 회의 주도층은 모든 정치세력위에 이승만을 옹립하려고 시도했다. 그날 독촉중협의 회장으로 이승만이 추대되었고, 앞으로의 회의 소집이나 구성은 이승만에게 일임되었다.<sup>97)</sup>

한민당의 대표로 참가한 원세훈은 정당세력의 통일에는 찬성하면서도 그 주체가 이승만이 아닌 임정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승만의 의도와 달리 한민당 주도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는 “여러 말 하지 않겠다. 통일에는 기본 조건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기관 아래에서 민족적 반역자나 매국노도 처단하여야 하고 북위 38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서로 약속할 점이 있으면 지금은 무조건하고 약속하고 나아가자! 그럼으로 우리가 시급히 할 일은 민주주의도 한 덩어리가 되고 공산주의도 하나로 힘을 뭉쳐서 조선독립을 위하여 민족적으로 나아가자! 먼저 내부적으로 합치자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sup>98)</sup> 그의 주장에서 원세훈이 송진우의 임정절대지지론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며, 민족적 총역량 집중론의 입장에서 민족문제

96) 윤덕영, 앞의 논문, 2011, 265~270쪽, 273~274쪽.

97) 독촉중협의 결성과정에 대해서는 정병준, 『우남 이승만연구』, 역사비평사, 2005, 455~508쪽.

98) 『매일신보』 1945.10.25.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송진우의 정계 개편 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의기투합해서 행동을 같이 했다.

한민당 주도세력은 독촉중협 발족 다음날인 10월 24일, 한민당, 국민당, 장안파 조공 3당의 회의를 소집하고 임정지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국민대회준비회의의 주선으로 소집된 회의에는 한민당에서 송진우, 김병로, 원세훈 등 6명이, 국민당에서 안재홍, 박용의 등 7명이, 주선자인 국민대회준비회의에서는 서상일, 김준연 등 5명이 참가했는데, 장안파 조공에서도 이영, 최익한, 최성한, 윤형식 등 7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성명의 요지는 임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 국내의 반민족 분자를 제의한 민주주의적 각층 각파와 제휴하여 국민 총의에 의한 정식 정부의 급속한 수립을 기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로 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위한 준비기구연구소를 둔다는 것,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지원한다는 것 등이다.<sup>99)</sup> 3당 공동성명을 통해 한민당 주도세력은 이승만의 구상, 즉 독촉중협 이름 하에서 모든 세력을 이승만의 절대 권위 하에 두는 것을 거부하면서, 독촉중협이 임정 지지로 모든 정치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성명에는 공산세력의 비록 일부이지만 장안파 조공이 동의하였다는 점이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현단계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민족혁명 단계에서 민족주의세력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은 당시 재건파 조공에 밀려 좌익 내에서 입지가 크게 약화된 시점이었다. 또한 그들이 실제 어느 정도, 얼마만큼 가담하고 있는지는 세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한민당내 사회주의운동 출신자들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2) 초기 한국민주당의 진보적 사회경제정책과 그 배경

한민당내 우파 사회주의자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초기 한민당

99) 『매일신보』, 1945.10.27; 『자유신문』, 1945.10.27.



의 정강 정책이 우파 사회주의자들과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의 상당수가 이탈한 1947년 이후의 한민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정책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1945년 9월 6일 발표되어, 9월 16일 당 결성대회에서 통과된 최초의 한민당의 정강과 정책은 간단하였다. 정강에서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기함”, 그리고 정책에서 “주요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정도가<sup>100)</sup> 눈에 띈다. 당시 해방직후 한국의 주요산업은 대부분이 적산이었기 때문, “주요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는 적산을 일반에게 불하하지 않고 국영기업이나, 국가가 통제관리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내에서도 영국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정책의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주의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정한 진보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은 그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1945년 11월 17일 한민당의 선전부장 함상훈은 한민당의 정강 정책을 해설하는 『아당의 주의정책』이란 글을 작성하였다. 이 문건은 내부 회람되다가 『개벽』 1946년 1월호에 발표된다. 문건에서는 “빈부의 차가 심하고 교육수준의 차가 심한 곳에 어찌 자유·평등을 바라랴?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원칙상 자유를認하나, 대기업에 있어서는 국가경영으로 하여 대자본의 절제를 꾀하고, 토지는 대소유를 금하여 자작농 정도에 한하고, 대지주는 그 토지를 국가에 매각하여 기업가로서 진출할 기회를 주고, 국유지는 소작인·고용농부들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여, 소작료를 3분의 1정도로 납입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치 않으면 안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동자 근로계급에도 생활의 안정을 보장토록 급료를 후히 하고, 사회시설을 신설 내지 확충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공산당이니 노동당이니 대두하는 것도 종래의 정치가 왕왕히 근로계급의 생활 문제를 등한시하였고, 또는 무시한 때문이다. 아당은 경제문제를 중시하여 대자본·대지주에게 통제정책을 써서 근로계급의 생활을

100) 『매일신보』 1945.9.17. 『자료대한민국사』 1권, 108쪽.

보장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1)</sup>

여기서는 몇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는 대기업의 국가경영이다. 강령에서의 주요산업 국영방침에서 더 나아가 대기업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표방하였다. 둘째는 근로계급의 생활보장과 임금상승을 위해 대자본에 대한 통제정책을 쓰겠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주도로 근로계급의 임금인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대자본의 경영활동에 적극적 개입하겠다는 점에서 진보적이고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급격히 고양된 노동자 농민대중의 변혁적 활동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는 토지문제에 있어 ‘대소유를 금하며 자작농 정도로 한다’는 토지개혁의 틀을 제시하면서, 국유지에서는 소작료 3.1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대체로 이후 적산토지에 대한 소작료 방침과 남한 정부 수립 이후의 농지개혁의 틀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민당의 기관지 격인 동아일보는 1945년 12월초 사설에서 우리 민족은 ‘언어공동체’이고, ‘자연공동체’이며, 유구한 역사를 통해 민족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 싸운 ‘운명공동체’임으로 “이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확고부동한 민족의식을 가진 민족단일체”라고 하면서, 이를 우리 민족의 독자성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건국이념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이념만 확립되면 계급적 대립문제, 기타 사회문제는 진보적 민주주의원칙에 의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정책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였다.<sup>102)</sup> 이는 민족문제가 선결이고 이것이 건국 이념의 핵심적 내용임으로, 이 이념이 확립되면 계급문제나 기타 사회정책은 ‘진보적 민주주의원칙’, 즉 사회주의적 경제 원리를 수용한 사회경제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주장이었다. 곧 민족문제를 앞에 두고 사회경제적 정책 부분으로 좌익세력과 대립할 수 없고, 좌익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원리를 일정하게 수용하여 양자 간의 장벽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1945년 12월 22일 송진우의 『한국민주당의 정견』 방송 내용은 당시 급진

101) 『개벽』 8-1, 1946.

102) 『한민족의 독자성』, 『동아일보』 1945.12.8.

적으로 변화하는 한민당 정책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방송에서 송진우는 “경제적으로 근로대중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자유에만 치중하고 균등에 있어서는 진실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윤추구에 방분(放棄)한 나머지 경제적 균등의 기회는 파괴되고, 따라서 근로대중의 생활은 안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독점적 전횡을 타파하는데 있는 것과 같이, 경제적 민주주의는 독점의 자본을 제압하는데 있는 것이니,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정책에 있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일치한 점을 발견치 못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자본을 쫓아내고 독점성을 띤 중요산업은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해야만 할 것이요, 또한 토지정책에 있어서도 종래의 불합리한 착취방법을 단연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인 소유토지의 몰수에 의한 농민에게 경작권 부여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인 소유 토지도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동시에 매매겸병을 금하여 경작권의 전국적 시설을 촉진하여 민중의 생활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03)</sup>

한민당을 대표하는 송진우의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독점의 자본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것에 기반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이다. 독점자본의 이윤추구 통제가 전제되지 않는 경제적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는 대자본을 요하는 독점적 중요산업의 국영 혹은 공영을 명시함으로써 경제정책에 있어 사회주의적 요소, 계획경제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독점적 중요사업의 대부분이 일제 적산이라는 점에서 이는 기존 민족자본의 권리를 곧바로 해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들이 적산 불하를 통해 성장할 가능성을 일정 정도 차단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셋째는 일본인 적산토지 뿐만 아니라 조선인 소유토지에 대한 토지개혁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매매를 제한하여 토지의 겸병을 막고 경작권을 안정시켜 민중생활을 안정시켰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그의 주장은 이후 전개된 남한의 농지개혁 보다 더

103) 『동아일보』 1945.12.22, 23.

강력한 토지개혁을 예고한 것이라 하겠다.<sup>104)</sup> 이런 송진우의 주장은 사실상 좌익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정책의 상당수를 수용한 것이었다.

송진우는 며칠 후 글에서 이런 정책 구상의 배경 설명과 함께 토지정책의 더 급진적 정책을 제시했다.

“혹자는 현 단계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나 그것은 일개 공식론에 불과하다. 현 단계는 대 이념 하에 수행되는 사회민주주의 혁명단계라고 본다. 토지는 소작권 설정에 의한 국유제로 해야 된다. 토지의 재분배는 몇 십 년 후에 또다시 토지점령의 폐해를 야기 시킬 것이니 백년지대계가 아닐 것이다. 철도, 선박, 전신 특히 의식주에 관한 대기업은 국영으로 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노동자 대우를 향상 시킬 것이다. 그 외 교육문제·사회보험 문제 등 일체 사회·교육 정책에 의하여 이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손문 선생의 삼민주의는 중국에 있어서 보다 우리 땅에서 먼저 그 이상적 실현을 볼 줄 믿는다”<sup>105)</sup>

12월 30일 암살당하기 직전에 작성한 이 논설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현 단계를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단계로 규정하는 것을 공식론이라 하여 일축한 점이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 곧 프롤레타리아혁명론의 전제로서의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론을 부정한다는 의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 단계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혁명론으로 발전하는 혁명이 아닌 그 자체의 완성된 혁명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민주주의 혁명단계”로 규정한 점이다. 일제하 송진우는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를 비롯해서 자유주의 지식인들 및 헌정회 계열의 정치가들과 일정하게 교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자유주의사

104) 한민당의 토지정책 추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황병주, 「해방 공간 한민당의 ‘냉전 자유주의’와 사유재산 담론」, 『동북아역사논총』 59, 2018.

105) 송진우, 「연두 소감」, 『선봉』 2-1, 1946.

상을 비롯해서 독점자본의 제한과 민중생활 보장을 주장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을 체제내적으로 개선하려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의 신자유주의 이념(New Liberalism)을 수용해서 일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sup>106)</sup> 영국의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해서 사회민주주의의 우파와 일정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회민주주의의 사상은 아니었다. 송진우 자신도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운 적이 거의 없었다. 때문에 송진우의 주장은 당내의 사회민주주의자, 당 밖의 우파 사회주의자들에게 보내는 입장 표명이었다. 사회경제적 정책에 있어서는 당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뿐이니, 우리와 협력하지는 의지 표명이었다.

셋째, 이런 사회민주주의 혁명단계 규정에 ‘대 이념 하에 수행되는’ 전제가 붙어있었다는 점이다. 이 ‘대 이념’이 어떤 이념인가? 그 답은 인용문 맨 아래에 있다. “손문 선생의 삼민주의는 중국에 있어서 보다 우리 땅에서 먼저 그 이상적 실현을 볼 줄 믿는다”의 구절이다. 쑨원과 그의 삼민주의는 조소앙의 삼군주의를 비롯해서 임정의 건국강령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는데, 송진우가 거의 유일하게 숭배하던 인물이 쑨원이었다. 별 취미가 없었던 송진우는 항상 쑨원 관련 글을 탐독하였다고 한다.<sup>107)</sup> 인물평에 과장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진우가 쑨원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활동에 큰 나침반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진우는 자신의 이념과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글로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노선의 진면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 남겼더라면 쑨원의 삼민주의는 그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쑨원의 활동은 항상 동아일보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었다. 쑨원의 삼민주의는 ‘민생의 공산’ 주장에서 보인 듯이 경제적 영역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을 상당부분 수

106) 윤덕영, 『1920년대 전반 민족주의 세력의 민족운동 방향 모색과 그 성격』, 『사학연구』 98, 2010, 349~364쪽.

107) 송진우에 대한 임병철(林柄哲)의 인물평에서는 “그는 하루에 2시간의 수면밖에 취하지 않는다. 그 밖의 시간은 오로지 사색과 政談뿐이다. 그처럼 다른 취미를 가지지 않는 이도 흔치 않을 것이다. 단지 있다면 그가 숭배하는 孫文傳 같은 것을 읽는 것이라” 임병철, 『인물소묘-송진우』, 『신천지』 1-1, 1946.

용하였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민족주의사상의 기반위에서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한 것이었다. 송진우의 사회민주주의혁명 규정은 이런 민족주의사상 우위의 규정을 받는 것이었다.

넷째, 중요 대기업의 국영 운영과 노동자 대우 향상을 명백히 한 점이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정책의 주요 골자 실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를 다시 교육문제·사회보험 문제 등 일체 사회·교육 정책에까지 확장시켰다.

다섯째, 토지개혁 문제에 대해 토지국유제 구상까지 언급한 것이다. 그는 “토지의 재분배는 몇 십 년 후에 또 다시 토지점병의 폐해를 야기 시킬”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토지국유화 방침을 주장했다. 토지국유화의 대상이 모든 토지인지, 귀속농지와 대지주의 토지에 한정하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렇지만 송진우의 토지국유 주장은 이미 일제시기부터 표출되고 있었고, 해방 후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그의 주장은 조공을 비롯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sup>108)</sup>

이러한 송진우 주장은 일제하 이래의 그의 사상과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만, 그를 넘어 해방직후의 변혁적 국면에서 좌익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장, 특히 사회경제적 정책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었다. 특히 사회민주주의를 공공연히 언급한 것은 큰 변화이다. 한민당내 우파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존재는 이런 수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8·15해방직후 한민당에 참여한 서정회는 같은 북풍파 출신 김종범이 간행한 『해방전후의 조선진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씨는 말하되, 한국 민주당을 부르조아적 반동단체 운운하는 일부의 비난자도 있으나, 그것은 일부 세력 경쟁의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떠드는 고의의 악선전이요, 내(자기)와 김약수가 이 당에 있는 이상 친일파, 반역자, 부르조아 등은 존재할 곳이 아니다. 미구에 숙청될 것이며, 조선 근로대중의 복리를 무시하는 정당과 인물의 존재는 불필요하다는 강경한 태도와 철저한 의사를 가지고 좌충우돌하고

108) 황병주, 앞의 글, 74~76쪽.

있다.”<sup>109)</sup> 곧 자신이 생각하는 조선 근로대중의 복리 실현을 위해, 자신과 김약수가 한민당 당내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제하 농민운동과 신간회운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서정희는 해방직후 한민당에 가담하여 당의 진보적 원로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45년 시기 초기 한민당을 대표하고 활동을 주도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송진우였다. 그렇지만 원세훈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원세훈은 중요한 정치적 회합이나 모임에 항상 한민당의 대표로서 송진우와 함께 했다. 한민당 내의 8총무 중에서도 원세훈은 거의 대표격이었으며, 송진우가 심혈을 기울인 국민대회준비회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송진우는 원세훈을 한민당내 진보적 분파의 대표로 인정할 뿐 아니라, 원세훈을 대동함으로써 한민당의 이미지 변신과 변화를 꾀했다. 원세훈은 일제하 중국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을 앞장서서 주도한 경력이 있었다.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주의자들의 협력에 적극적이었고, 1930년대에는 국내에서 많은 논설을 집필하면서 민족협동전선의 필요성을 여전히 적극 주장하였다. 해방직후에는 과거 사회주의운동 출신 인물들, 진보적 사람들을 한민당에 참여시키는데 주도적이었다. 송진우가 한민당내 국내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라면 원세훈은 해외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에게도 니를 주장하는 조공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을 민족적 총역량 집중과 임정 지지로 결집시키려는 초기 한민당의 정책 방침에 적극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키는데도 앞장섰다. 비록 이념을 달랐지만 원세훈은 송진우와 의기가 투합하여 초기 한민당을 이끌었다.

한편 송진우는 사회주의운동 출신 중 또 다른 대표적 인물인 김약수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송진우는 서울과 고려공산동맹 책임비서와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지낸 김준연을 감옥에 있을 때부터 공을 들여 출옥하자마자 동아일보로 영입했고, 자타가 공인하는 최측근으로 삼았다. 그를 통해 김약수의 행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경계심을 완전히

109) 김종범·김동운 지음, 앞의 책, 1949, 177~178쪽.

풀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한민당 주도세력이 1945년 12월 들어 급진적이고 진보적 모습을 보인 것은 그들이 주도하여 전개한 정계개편운동과 관련이 있었다. 한민당 세력들은 초기 미군정의 정치고문과 군정요원의 부족을 틈타 미군정 행정권 및 경찰권, 사법권 등의 요직에 적극 진출하여 1945년 말이면 미군정의 하위 권력을 사실상 장악하여 갔다. 그리고 이런 힘을 배경으로 임정 요인들이 귀국한 것을 전후하여 적극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민당 주도 세력은 미 국무부의 한반도 신탁통치 방침 및 소련 점령 하에 우익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북한 정세들을 우려 속에서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 방침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신탁통치 방침에 대해 알고 있었고, 3상회의 결정이 전해지기 한 달 전인 1945년 12월초부터 이미 열강의 신탁통치 방침과 소련 지배하의 북한체제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 승인’, ‘38도선 즉시 철폐’ 등의 민족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반소반공 운동을 전개하였다.<sup>110)</sup>

다른 한편 한민당 주도세력들은 임정 요인들의 귀국과 맞추어 본격적 정계개편운동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당면 과도정부의 역할을 임정이 전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임정 주도세력에게 지원하며 그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다양한 중간과 세력, 그리고 공산당을 제외한 여타 좌익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민족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좌우 연합과 민족통일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친일파·민족반역자 청산 문제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제기하였고, 좌익세력의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 중 일부를 수용한 사회경제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정계개편운동은 국민대회 준비회의 1946년 1월 10일 ‘국민대회’ 개최 주장으로 집약되어 나타났는데, 이들의 활동은 임정 주도세력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었다.<sup>111)</sup>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나 사회주의 계열 인물들이 그 과정에 일부 참여하기도

110) 윤덕영, 『주한미군정의 초기 과도정부 구상과 송진우·한국민주당의 대응』, 『한국사연구』 154, 2011, 216~221쪽.

111) 윤덕영, 『미군정 초기 정치 대립과 갈등 구조의 중층성-1945년 말 한국민주당 주도세력의 정계개편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5, 2014, 268~293쪽.



하였다. 1월 10일 국민대회 개최에 상정할 대한민국 헌법 대강을 마련하기 위해 헌법연구위원 11명을 선임하였는데, 그중 당내 서상일 외에 외부에서 진보적 인사로 이극로, 백남운이 참여하였다.<sup>112)</sup> 그 후 10명이 추가되었는데, 당내 진보파 중에서 원세훈, 김약수, 고창일이 선임되었다.<sup>113)</sup>

이런 일련의 활동은 한편으로는 조공 세력을 여타 좌익세력 및 중간세력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임정을 앞세워 한민당 주도세력이 실제 권력을 장악하려는 해계모니 투쟁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또한 한반도에서 외국군의 철수, 특히 소련의 철수를 노린 반소반공 투쟁의 성격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 1945년 12월 하순에 국민대회준비회와 임정의 특별정치위원회가 각기 별개로 움직이고 있지만, 서로 경쟁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상호 보완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임정 주도세력과 한민당 주도세력의 협력 관계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른 소위 ‘신탁통치’ 국면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하고, 그 와중에서 한민당의 핵심이자 정계개편운동을 주도하던 송진우가 의문의 암살을 당하면서 순식간에 막을 내리고 도리어 갈등관계로 변모하고 만다.<sup>114)</sup>

### 3) 김성수의 정치일선 등장과 정노식의 탈당

한민당내 보수 주류세력의 핵심이지만 사회민주주의세력에 대해 지원하던 송진우가 죽자, 한민당내 좌파, 즉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독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좌파의 정책을 수용하여 초기 한민당의 진보적 사회경제정책을 이끌던 송진우의 죽음은 한민당의 정책 선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파 세력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했다. 이 때 가장 먼저 활발히 움직인 것은 한민당의 비주류인 우파 사회주의 세력과 진보적 민족주의 세력들의 대표적 인물로 임시 당대표를 맡고 있던 원세훈이

112) 『동아일보』 1945.12.23; 『서울신문』 1945.12.23.

113) 『동아일보』 1945.12.27.

114) 윤덕영, 앞의 논문, 2014, 295~296쪽.

었다. 그는 한민당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당내 각 계파별 대립과 분란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sup>115)</sup>

1946년 초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좌파와 우파 세력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임정내 진보세력인 김원봉과 김성숙, 그리고 인민당 등의 주선에 의해 한민당, 국민당, 인민당, 공산당간의 4당 회담이 열리게 되고, 1월 7일 4당 대표가 합의하여 ‘4당 커뮤니케’가 발표되었다.<sup>116)</sup> 이때 한민당의 대표로 참석하여 합의에 서명한 사람이 당의 임시대표 원세훈과 김병로 이었다. 1월 8일 오전 한민당 긴급 간부회의에서는 대표로 참석했던 원세훈과 김병로가 경과보고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합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한민당 선전부장 함상훈은 4당 커뮤니케를 부인하는 성명서를 긴급 발표하였다.<sup>117)</sup> 한민당의 이런 발표는 당 공식대표가 가서 합의한 사항을 뒤엎는 것이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는 당권향배를 둘러싼 한민당내 대립과 관련이 있었다.<sup>118)</sup> 한민당 주류세력은 김성수를 후임 수석총무로 선임함으로써 당권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세훈의 당권 도전 과정에서 한민당내 좌파 세력들은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연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룹별로 개별적으로 서로 다르게 활동하였다. 원세훈을 뒷받침하는 것은 고려민주당계에 머물러 있었다. 원세훈은 먼저 좌파세력내의 단합과 결집을 주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한민당내 좌파세력도 결집시키지 못한 그의 지도력과 조직력으로는 한민당을 장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송진우가 죽으면서 한민당에도 외부의 이승만과 김구의 영향력이 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김구를 정점으로 하는 임정 주도세력은 반탁운동 과정에서 급격히 고조된 대중들의 임정의 지지에 고무되어 한민당 주도

115) 서상일은 당시 한민당 당수를 둘러싸고 3파가 준동하였다고 한다. 서상일, 『인촌 김성수 동지는 왜 위대하다 하는가』, 『신생공론』 6·7합병호, 1955; 인촌기념회편, 『인촌 김성수전』, 인촌기념회, 1976, 497쪽.

116) 『중앙신문』, 『서울신문』 1945.1.9.

117) 『동아일보』 1945.1.9; 『중앙신문』 1945.1.9.

118) 자세한 것은 다음 참조. 윤덕영, 앞의 논문, 2016, 321~329쪽.

세력과의 협력 관계를 무산시키고, 임정법통론을 앞세워 자파만의 국가건설 방략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내 기반이 미약하고 미군정에 독자적으로 대항할 힘이 없는 그들의 선택은 스스로를 옥죄고,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1월 20일 임정 주도로 열린 비상정치회의 준비회에서는 이승만 주도의 독촉중협 합류를 결의한다. 비상정치회의와 독촉중협이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하는 형식으로 비상정치회의 준비회가 비상국민회의 주비회로 전환되었다. 이승만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주도했다.<sup>119)</sup> 이렇게 이승만과 김구의 연합이 가시화되자, 1월 23일 임정내 좌파를 대표하던 김원봉, 성주식 등의 조선민족혁명당 세력과 김성숙의 조선민족해방동맹 세력이 임정과 비상정치회의의 우익편향을 비판하며 비상정치회의 준비회를 탈퇴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sup>120)</sup> 이들의 탈퇴는 비상정치회의를 중심으로 좌우의 정치세력을 망라하려던 김구 등 임정 주도세력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좌우 연립정부로서 임정의 위상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것이었다.

반면에 1945년 12월 우익 진영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고립되었던 이승만은 이후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위원이 출범하는 일련의 정치과정에서 미군정의 지원 아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김구가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위원에서 부의장에 오르지만, 대신에 일제하 민족운동의 상징이자 법통 주장의 근거였던 임정은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1945년 우익세력 중에 가장 강력한 정당이었던 한민당의 존재감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승만과 김구가 주도하는 정치과정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위원에는 처음부터 합류가 불가능했던 조공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인민당과 독립동맹은 물론, 기존에 임정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해방동맹 등 중간적 성향의 좌파들도 상당수 배제되었다. 정국은 조공 중심의 민전, 이승만 주도의 민주위원, 김구와 한독당 세력이 주도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주도로 돌아가고, 중간 좌파세력의 배제

119) 정병준, 앞의 책, 525~528쪽.

120) 『자유신문』 1946.1.24; 『조선일보』 1946.1.24.

가 이루어졌다. 이때 한민당에서 정노식이 탈당하였다. 한민당의 초기 조직 과정에 참여해서 간부까지 역임했던 정노식은 한민당을 탈당한 것에서 더 나아가, 조공이 주도하여 결성한 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에 참여하게 된다. 1946년 2월 1일에 민전 결성 준비위원회 24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정노식이 포함되었다.<sup>121)</sup>

정노식이 언제 탈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해방직후 서울시 정연합회 위원장에 선임된다. 모스크바3상결정이 전해진 직후 1946년 1월 3일, 서울 운동장에서 서울시인민위원회와 서울시정연합회 주최의 민족통일자주독립 시대대회가 개최된다. 원래는 신탁통치반대 집회로 소집이 예고되었다가,<sup>122)</sup> 대회 당일에는 3상결정 찬성 집회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13일에 70여 서울 시정회장들이 모여 신탁통치반대 정회장회의를 구성하고,<sup>123)</sup> 서울시정연합회의 개편을 요구하였다.<sup>124)</sup> 22일 서울시정회장들이 모여 서울시정연합회의 해체와 동 임원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한성시정연합회를 새로 구성한다.<sup>125)</sup> 대체로 이때를 전후로 하여 한민당을 탈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노식은 탈당 성명에서 “전민족의 민주주의 정권건설에 있어서 한민당의 배타독선적 태도를 수긍할 수 없어서 私情으로서는 석별키 어려우나 공적인 입장에서 탈당을 결의”하고 주장하였다.<sup>126)</sup> 2월 4일 개최된 민전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정노식은 연락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sup>127)</sup> 2월 15일 민전이 결성되자, 정노식은 중앙위원과 부의장에 선임되었다.<sup>128)</sup> 1946년 민전주도로 남산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만세 삼창을 선창하기도 했다.<sup>129)</sup>

정노식의 탈당은 이후 전개될 한민당의 분열과 좌파의 탈당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송진우가 생존해 있을 때와 달리 한민당내 좌파, 사회민주주의자

121) 『조선일보』 1946.2.1.

122) 『중앙신문』 1946.1.3.

123) 『동아일보』 1946.1.14.

124) 『서울신문』 1946.1.16.

125) 『동아일보』 1946.1.24.

126) 『자유신문』 1946.2.16.

127) 『조선일보』 1946.2.5.

128) 송남헌, 앞의 책, 1976, 243쪽.

129) 『서울신문』 1946.3.2.

들이 한민당 정책 방향이나 정치노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였고, 당권에 대한 영향력도 미약해져 갔다. 이는 진보적 사회경제정책을 내세웠던 초기 한민당의 정책방침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일정한 계기가 주어진다면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한민당내 좌우 대립은 바로 표면화할 소지가 있었고, 이후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면서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파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한민당에서 계속 남을 것이냐, 아니면 탈당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느냐의 선택의 기로가 멀지 않게 되었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초기 한민당에 참여한 우파 사회주의세력, 즉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의 인물들의 동향을 한민당의 결성에 이르는 과정과 초기 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원세훈, 김약수, 유진희, 정노식의 1930년대부터 해방초기까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초기 한민당에서 제기된 진보적 사회경제정책의 내용과 함께 그러한 정책이 제기된 배경을 이들의 동향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해방직후 우파 사회주의자들이 한민당 결성 흐름에 합류한 것은 건준 지도부와 민족주의세력의 연합 협상이 결렬되고, 조공이 건준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원세훈이었다. 중국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을 전개하였던 원세훈은 체포되어 신의주형무소에서 복역한 후 1930년 출옥하였다. 그는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했고, 기독교나 천도교에 기반한 운동들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코민테른의 지시만을 맹종하거나 계급 대 계급 전술을 내세우며 민족주의세력을 공격하던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는 민족적 총역량을 집중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8·15직후 진정한 사회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강령으로 하는 고려민주당을 결성하기도 했지만, 곧 조선민족당 발기회에 참여한다.

그는 건준에 참여하였던 김약수와 유진회를 권유해 조선민족당 결성에 합류시킨다.

일제하 사회주의운동 그룹 북풍파의 지도자였던 김약수는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복역한 후, 1931년 만기 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는 『비판』 등에 관여하고, 『대중』을 창간하여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을 선봉에 서서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1935년 전후부터 그 입장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였으며, 민족주의세력과의 협력을 주장하던 원세훈, 서정희 등의 사회주의자, 그리고 신간회 중앙지도부를 이루었던 김병로 등 민족주의자들과 어울려 지냈다.

1920년대 대표적 사회주의 이론가였던 화요파 유진회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그도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복역한 후, 1931년 만기 출옥하였다. 1932년 『신계단』을 창간하였는데, 『신계단』은 『비판』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동아일보·수양동우회·천도교 세력 등 거의 모든 민족주의세력을 민족계량주의로 비판하면서 공격하였다. 그도 1930년대 중반 입장이 바뀌었다. 유진회는 김약수와 자주 어울렸는데, 그의 변화는 김약수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해방 직후 사회주의진영과 결별하게 된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가 건준 과정에서 보였던 조공계열의 조급한 헤게모니 전취와 무리한 방법 등에서 나온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1930년대 이래의 일련의 과정에서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김약수는 조선의 현 단계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이고, 이를 위해서는 민족적 총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으며, 조선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급투쟁보다도 민족적 총명에 의하여 계급투쟁을 회피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형태는 불가분 의회중심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한민당의 참여는 의회정치 국가체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조선민족당이 결성된 즈음 한국국민당 발기회가 개최되었다. 거의 대부분이 민족주의계열의 인물들이었는데, 여기에 과거 국내 상해파 출신의 정노식이 참여하였다.

조선민족당과 한국국민당은 합동협상을 전개하여 9월 4일 한민당 발기회

를 개최하였다. 재건과 조공 주도로 인공이 선포되자, 이에 대항하여 송진우 주도로 국민대회준비회가 결성되었고, 9월 16일 한민당이 결성되었다. 초기 한민당에서 간부로 선임된 우파 사회주의 인물들은 한민당 발기회에서는 조직부장 김약수와 지방부장 정노식이, 한민당 초대 부서장에는 함경도지역 대표 총무 원세훈, 조직부장 김약수, 조사부장 유진희, 청년부장 박명환 등이 있었다. 원세훈은 국민대회준비회 부위원장을 겸임했다.

한민당의 초기 활동은 인공 수립을 주도한 재건과 조공에 대한 공격과 인공에 대한 대항으로서 대한민국임정 절대지지론의 전제 위에서 전개되었다. 임정지지론은 공산주의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독립당 주도하에 조선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좌우 세력을 망라한 입장을 신정권의 모태로 삼기위한 활동이었다. 또한 한민당의 임정지지론은 국민대회준비회를 통한 송진우의 과도 정부 구상과 맞물려 있었다. 그들은 국내외 정치세력과 민중들의 대표가 참가하는 국민대회를 통해 장차 수립될 신국가의 의회 조직을 만들려고 했고, 국민대회준비회는 그 모태였다. 한민당 주도세력은 근대정당정치를 자본주의적 전망을 지향하는 보수·자유정당과 사회주의적 전망을 지향하는 무산·진보정당이 의회민주주의적 질서 속에서 권력을 놓고 서로 각축하는 정치질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초기 한민당의 활동은 임정지지론의 확산과 국민대회준비회 활동의 두 축으로 움직였고, 한민당에 참여한 우파 사회주의자들은 이에 동원되었다.

초기 한민당의 모습은 지금까지 학계와 일반이 알고 있던 한민당의 일반적 이미지와는 큰 괴리가 있는 것이었다. 조공과의 투쟁, 반공이라는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지만, 여타의 부분에서, 특히 사회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상당히 급진적이고 진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크게 다음 2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1945년 12월 임정세력의 귀국에 맞추어 본격화된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한민당 주도세력이 주도한 정계개편운동이다. 그들은 임정의 귀국을 계기로 막대한 정치 자금을 임정 주도세력에게 지원하며 그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민족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좌우 연합과 민족통일을 주장하

면서 공산당을 제외한 여타 좌익세력과 중간과 세력을 망라하려고 하였다. 이들의 정계개편운동은 국민대회준비회의 1946년 1월 10일 ‘국민대회’ 개최 주장으로 집약되어 나타났다. 한민당 주도세력은 당면에 있어 민족문제가 선결이고 건국 이념의 핵심적 내용이라며, 이 이념이 확립되면 계급문제나 기타 사회정책은 좌익이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원칙’, 즉 사회주의적 경제원리를 수용한 사회경제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하였다. 송진우는 방송연설에서 경제적 민주주의가 독점의 자본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것에 기반한다면서 독점적 중요산업의 국영 혹은 공영을 명시하고, 조선인 소유토지에 대한 토지개혁과 민중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공표하였다. 며칠 뒤 논설에서는 현 단계의 혁명이 쑨원의 삼민주의와 비슷한 민족주의 이념 하에 수행되는 사회민주주의혁명이라면서, 중요 대기업의 국영 운영과 노동자 대우 향상, 토지개혁에서 더 나아가 토지국유제 구상까지 언급하였다. 이런 송진우의 주장은 당내 사회민주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를 당 밖의 중간과 및 우파 사회주의에게 보내는 입장 표명이었다.

둘째는 원세훈을 중심으로 한 한민당내 우파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역할이었다. 초기 한민당에서 원세훈은 중요한 정치적 회합이나 모임에 항상 한민당의 대표로서 송진우와 함께 했다. 송진우가 한민당내 국내 세력, 민족주의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라면, 원세훈은 해외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을 주도했던, 또한 국내 우파 사회주의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헤게모니를 주장하는 조공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을 민족적 총역량 집중과 임정 지지로 결집시키려는 초기 한민당의 정책 방침에 적극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키는데도 앞장섰다. 비록 이념을 달랐지만 원세훈은 송진우와 의기가 투합하여 초기 한민당을 이끌었다.

이런 초기 한민당의 진보성은 한민당내 보수 주류세력의 핵심인 송진우가 주도한 정계개편운동과 밀접히 관련이 있었고, 이를 위한 원세훈을 중심으로 한 한민당내 사회민주주의세력에 대한 송진우의 협력과 적극적인 지지위에서 성립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1945년 12월말 송진우가 갑자기 암살되면서 정계개편운동은 무산되었고, 초기 한민당의 진보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송진우의 지원이 사라지면서 한민당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독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원세훈은 한민당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였는데, 한민당 주류세력은 김성수를 후임 수석총무로 선임함으로써 당권을 유지하였다. 원세훈의 당권 도전 과정에서 한민당내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은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연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룹별로 개별적으로 서로 다르게 활동하였다.

한국에서 정치세력으로 사회민주주의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한민당내의 사회민주주의세력이 아닐까 한다. 물론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백남운의 남조선신민당,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 등에도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이 다수 있었다. 그렇지만 남한 내 좌우 대립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 중간과로서 입지를 가질 수 없었다. 1945년에는 조공이 주도한 인공 수립에 참여하는 때부터, 그리고 1946년에는 민전에 가담한 때부터 조공의 프랙션을 비롯한 직간접적인 간섭과 영향에 종속되었다. 이후 3당 합당으로 그 존재자체가 없어지게 되었다. 근로인민당과 조선인민공화당의 결성은 어찌 보면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선이 될 수 있었지만, 여운형의 암살과 김원봉에 대한 탄압에서 보이듯이, 남한 내에서 그들의 설 자리는 점차 없어져 갔다. 그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일부는 미군정과 우익 경찰의 탄압을 피해 어쩔 수 없이 공산당이 주도하는 북한을 선택하게 된다. 일부는 남한에 남았지만, 반공을 넘어 사회주의적 모든 경향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로서의 경력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한 독자세력으로 존립할 수 없었다.

한민당에서 출발한 우파 사회주의자들은 현실론자들이었다. 그들은 당면의 국가건설에서 민족주의 세력을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초기에는 임정지지론으로, 1946년 이후는 남한 정권 지지의 입장에서 있었다. 그들은 의회민주주의 질서의 정치체제를 건설하려고 했고, 그 전제하에서 활동하였다. 한민당에 참여한 경력 때문에 좌우 대립이 격화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초기 남한 정권의 수립과정에도 정치세력으로 일정하게 활동하였다.

■ 참고문헌

『개벽』, 『대조』, 『백민』, 『별건곤』, 『비판』, 『삼천리』, 『서울신문』, 『신생공론』, 『신천지』, 『조광』, 『진상』, 『해성』, 『동아일보』, 『매일신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중앙신문』, 『자료대한민국사』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독립을 향한 집념 : 고하 송진우 전기』 동아일보사, 1990.

김무용,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노선과 조선인민공화국』, 『한국사학보』 9, 2000.

김종범·김동운 지음, 『해방전후의 조선진상 : 제2집 독립운동과 정당 급 인물』, 조선정경연구소, 1949.

김재명, 『한국현대사의 비극 : 중간파의 이상과 좌절』, 선인, 2003.

박찬승, 『언론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송남현, 『해방30년사』, 성문각, 1976.

\_\_\_\_\_, 『시베리아의 투사 원세훈』, 천산산맥, 1990.

심지연, 『한국민주당연구』 I, 풀빛, 1982.

\_\_\_\_\_, 『한국현대정당론-한국민주당연구』 II, 창작과비평사, 1984.

우사연구회 역음, 심지연 지음, 『송남현 회고록 - 김규식과 함께 한 길』, 한울, 2000.

이만규, 『여운형투쟁사』, 민주문화사, 1946.

여운홍, 『몽양 여운형』, 1967, 청하각.

김인식, 『민족주의세력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개조 움직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2018.

김진웅, 『1920년대 초 재일본 조선인 유학생의 사회주의 활동과 코스모구락부(コスモ俱樂部)』, 『한일민족문제연구』 37, 2019.

김하나, 『김약수의 진보적 정치노선과 민족공화당 결성 운동 1948~1949』,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박종린, 『1920년대 초 반지분주의사상과 대중시보사 그룹』, 『한국사상사학』 47, 2014.

박찬승, 『언론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박철하, 『북풍파 공산주의 그룹의 형성』, 『역사와 현실』 28, 1998.

\_\_\_\_\_, 『김약수, 반일 민족해방운동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운동까지』, 『내일을 여는 역사』 28, 2007.

박태균, 『해방직후 한국민주당 구성원의 성격과 조직개편』, 『국사관논총』 58집, 1994.

윤덕영, 『8·15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좌·우 분립의 배경』, 『사학연구』 100, 2010.

\_\_\_\_\_, 『1945년 한국민주당 초기 조직의 성격과 주한미군정 활용』, 『역사와현실』 80, 2011.

\_\_\_\_\_, 『송진우·한국민주당의 과도정부 구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론』, 『한국사학보』 42, 2011.

\_\_\_\_\_, 『주한미군정의 초기 과도정부 구상과 송진우·한국민주당의 대응』, 『한국사연구』 154, 2011.

\_\_\_\_\_, 『미군정 초기 정치 대립과 갈등 구조의 중층성-1945년 말 한국민주당 주도세력의 정계 개편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5, 2014.

\_\_\_\_\_, 『1946년 전반 한국민주당의 재편과 우익정당 통합운동』, 『사학연구』 121, 2016.

\_\_\_\_\_, 『조선중앙사회단체협의회 논쟁과 합법운동론』, 『역사와 현실』 118, 2020.

이성규, 『항일 노농운동의 선구자 서정희 하』, 지식산업사, 2006.

- 이진오, 『정노식의 행적과 조선창극사 저술경위』, 『판소리연구』 28, 2009.
- \_\_\_\_\_, 『정노식의 생애 연구 -행적과 교유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3, 2015.
- 이현주, 『조선공산당의 권력구상과 조선인민공화국』, 『한국근현대사연구』 36, 2006.
- 전명혁, 『1920년대 전반기 까엔당과 북풍회의 성립과 활동』, 『사림』 12·13, 1997.
- 전성호, 『해방 이후 원세훈의 좌우합작운동과 정치활동』,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정병준, 『우남 이승만연구』, 역사비평사, 2005.
- 조규태, 『1920년대 중반 在北京 創造派의 民族唯一黨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 2003.
- \_\_\_\_\_, 『원세훈의 임시정부 수립·변혁 활동과 민족유일당 운동』, 『송실사학』 29, 2012.
- 조형열, 『1930년대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의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과 ‘실천적 조선연구론’』, 『한국사연구』 177, 2017.
- \_\_\_\_\_, 『1930년대 전반기 잡지 『비판』의 주도층과 편집방침』, 『역사연구』 34, 2018.
- 최보민, 『1930년대 초반 반천도교운동에 나타난 ‘사회주의 그룹’의 활동과 인식』, 『역사연구』 34, 2018.
- 황병주, 『해방 공간 한민당의 ‘냉전 자유주의’와 사유재산 담론』, 『동북아역사논총』 59, 2018.

## Trends of Social Democrats in the early Korea Democratic Party and the Background of Progressive Social and Economic Policy

Yoon, Duk-yo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trends of right-wing socialists, or social democratic figures, who participated in the early Korea Democratic Party(KDP) in relation to the process and early activitie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the KDP. It is also intended to explain the contents of progressive socioeconomic policies raised by the KDP in relation to their trends.

In the early KDP, Won Se-hoon, Kim Yak-soo, Yoo Jin-hee, and Jeong No-sik participated as executives. Until the early 1930s, their ideologies and activities differed greatly. However, almost all of them said that after liberation, the current stage of the bourgeois democratic revolution should move toward national unity and parliamentary political order rather than class struggle. The main opposition in the early KDP insisted on socioeconomic policies that greatly embraced socialist economic principles. This was an acceptance of the “progressive democratic principle” that the left wing claimed at the time. Song Jin-woo, the core of the KDP, even claimed that the current revolution was a social democratic revolution carried out under the nationalist ideology. It was an expression of its position to accept the claims of social democrats within the party and to right-wing socialism outside the party. During the 1945 period, Won Se-hoon was always with Song Jin-woo as the leader of the KDP at

---

\*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Senior Research Fellow

important political gatherings and gatherings. Although the leaders of the KDP did not deny cooperation with the communists, they pursued cooperation under the premis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ought to establish a political system of parliamentary democratic order. Social democrats in the KDP agreed to this premise.

**Key words:** Korea Democratic Party(KDP), Social Democracy, Right-wing Socialism, Won Se-hoon, Kim Yak-soo, Yoo Jin-hee, Jung Noh-sik, Seo Jung-hee, Song Chin-woo